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 이웃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리는 감사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통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10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11월 21일 (토) 제 1803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발행인 칼럼 : 감사절 특집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2020년은 왜 이리 길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직장을 휩쓸어간 팬데믹은 왜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가? 교회의 문을 오래 동안 닫아야 했는데 또 언제까지 그 문을 열고 단기를 반복해야 하는가? 그러는 가운데 추수 감사절이 다가왔다. 이 2020년에 과연 감사할 것이 있는가 궁금하다. 이런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상황 속에서 감사절을 축제처럼 맞이하기가 누군들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자. 감사할 것이 있다. 아니 감사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2020년의 기적에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해보자. 온 세상에 덮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이처럼 남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둘러보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많이 있다. 우리에게

게 남은 사명이 있다. 우리 자신은 남은 자이다. 기적 같이 남아있는 것이 또 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남은 기적은 은혜이니 입에서 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日常)에도 감사가 넘친다. 2020년에도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시원한 물, 따뜻한 햇볕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 올해도 하루하루 눈 뜨고 먹고 걷고 일하고 잠자며 살아온 일상들로 가득 차 있다. 지나치고 보니 나를 부요케 한 누군가의 평범한 만남도 올해의 일상 속에 계속 있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할까?"로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다. 감사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020년의 일상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누구든지 2020년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리라. 2020년에는 특히 고통이 컸으니 크게 감사해야 한다. 한센병 환자에게 폴 브랜드는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내게 고통을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은 고통이었다. 고통이 없으니 잘려나가는 것들을 앞서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고통은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팬데믹의 고통이 없었다면 인류는 다른 것으로 더 크게 더 폭삭 망가졌을 것이다. 지난봄부터 어깨가 아팠다. 견디다 못해 9월에는 수술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활치료 중이다. 어깨가 아파 잠도 못자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를 잃었던 이 아픔이 아니었다면 나는 자고(自高)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11월을 감사의 달이라 부르지만 감사하는 어느 달, 어느 계절만의 몫이 아니다. 사계절이 모두 감사의 계절이다.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에게 잃고 자신도 순교자의 길을 걸으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하셨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주릴 때도 주의 위로 더한 것들/ 솔로몬의 부귀보다 오히려 더 귀한

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오히려 더 귀한 것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 떠나/ 고생 중의 인내함은 최후승리 이룩하네" 매서운 시간 속에서 드러진 목사님의 감사라면 혹독한 2020년의 우리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선거가 끝난 지 3주가 되어 오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해 분분(紛紛)하다. 2020년에 겪는 이런 모습은 일찍이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아직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니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때 크게 감사할 일이 있다. 확실하게 확정된 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왕은 4년 동안 미국만을 통치하는 일시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000년 전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였는데 2020년의 우리도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드릴 수 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시편136:3).

### 소대시 | 감사절

#### 이 가을엔



이 가을엔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한 해의 소망이 여문 뒤  
그 열매 한 바구니 가득 채워  
동네를 돌며 나누고  
기쁨에 찬 노래를 합창케 하소서

석정희 합창하는 무리 속에 어울려  
뜨겁던 태양

거칠던 바람도 기억하며  
목 타던 가뭄 끝에  
내리시던 빗줄기  
축복의 눈물로 쏟게 하소서

넓은 들에 가득한 곡식  
나무마다 곱게 영근 열매  
가렸던 푸른 치마 벗어 내리고  
온 몸으로 하늘을 두르고 선  
그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을 바치게 하소서

이윽고 그 푸르던 하늘 내려 앉고  
빈 들에 어둠이 쌓일 때  
낙엽을 밟고 서서  
축복과 감사보다 늦은  
회개의 깨달음 고투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흰 눈 내린 새벽길  
하얀 용단을 밟고  
종소리 울리는 교회로  
발걸 옮기는 꿈 잇게 하소서

[필자소개] △Skokie Creative Writer Association 영시 등단 △'창조문학' 시 등단, 한국문협 및 국제펜한국본부 회원 △대한민국문학대상 수상 등 다수 △시집 "문 앞에서" "나 그리고 너" "The River"(영) "엄마되어 엄마에게" "아버지 집은 따뜻했네"



시론 김인환 목사

2면



환관 가운데 드리는 감사... 2020 추수감사절... 2면

2면



추수감사절 특집설교 오세훈 목사 3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백스펠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gbook-usa.com | cjb@jgbook.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역대상16:34

# Thanks Giving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확!** 바뀝니다.  
역사적 과업을 위한 목회혁신전략  
**SBM** 오늘의 교회진단과 처방

**3대 목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총재 : 황의영 목사**  
세계교회에 희망을 드립니다  
C.P. : +82.10.5230.9190

**SBM FOUNDATION**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 1820호  
Phone +82.2.564.3191 / Fax +82.2.564.6933  
E.mail : sbmusa@hanmail.net  
The International Headquarters of SBM  
5531 Fullerton Ave.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Phone 562.810.9191

**SBM Foundation**  
• 동양장로교회 (서울, 청주, 캄보디아)  
• 제단법인 SBM 장학재단  
• 찬양단 SBM 코럴  
• 주식회사 SBM 인터내셔널  
• 도서출판 SBM 미디어

**SBM Global Network**  
• SBM Argentina • SBM Botswana  
• SBM Brazil • SBM Canada  
• SBM Cambodia • SBM Japan  
• SBM Korea (HQ) • SBM Philippines  
• SBM South Africa • SBM U.S.A. • SBM Zimbabwe

Serving GOD First • Biblically Applied Life • Model for Enculturation





시론

진정한 행복의 조건



김인한 목사 (전 총신대 총장)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그의 뜻이다. 왜냐하면 창조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채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였고, 그러한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욱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타락한 인간은 생명을 경시하면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이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국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간 각자의 천부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삶의 질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우리들은 행복해야 한다. 아무도 이를 방해하거나 막지 못한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이다. 얼마 전 한국의 모 유력 일간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보고결과를 게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80세 5,020명을 대상으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31%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하게 사는 것'(26.3%), '돈과 명성을 얻는 것'(12.7%)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10.4%),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7.6%), '자녀교육을 잘하는 것'(6.5%),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3.7%),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0.9%),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0.9%),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0.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고 보고했다. 매우 좋은 현상이다. 좋은 가정은 건전한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좋은 배우자란 어떤 배우자를 일컫는지 설명이 없기에 과연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함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기 항목 중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 0.9%로서 10가지 행복조건 중 끝에서 두 번째다. 이것은 종교성향이 매우 강한 우리 민족성을 비추어볼 때 현재의 한국 종교가 민족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는 이에 주목을 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며 정경(正經)인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기독교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4면으로 계속)

환란 가운데 드리는 감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2020 추수감사절, 팬데믹 중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 의미와 실천 제시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한 해를 인도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달이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 감사절을 맞았다. 이제 코로나 고통의 끝이 아직 도요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절기를 맞게 된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리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자세다. 그러나 올해처럼 코로나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고 계신다. 바로 온전한 감사기도다. 시편 50편 14~15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한다.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에 옮겨 주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한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감사기도가 주님을 영화롭게

가까웠던 지구촌이 코로나의 높은 장벽을 쌓는다.

상실, 폐허, 죽음, 슬픔, 고독, 자살의 어두운 색깔로 채색된 세상이다. 이때, 감히 누가 감사의 시를 읊을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하박국의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며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역설적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과 함께 간다. 순례자의 삶은 고난의 가시밭을 걷는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

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감사절 행사는 단지 봉투에 봉인돼 수취인 하나님만 읽을 수 있도록 감사카드를 보내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감사절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사다. 감사는 귀속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업위하시도다"(사66:5)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다.

세속 사회에서 감사절은 종교를 초월한 축일이거나 심지어는 종교를 기반으로 선택된 공휴일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

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1-3절).

시편 136편은 공동체적 감사를 촉구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초대한다. 승리한 스포츠 팀의 팬이나 승리한 정치 후보의 지지자처럼,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듣게 하고 그들도 그리하게 하면 우리 마음은 서로 감사로 고무된다.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른 이들이 "듣고 기뻐하게" 하면 그들이 함께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격려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모임 수도 없고 찾아가갈 수도 없지만 남은 가족이라도 함께 감사절 식탁에 둘러 앉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자비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선 감사하라 "듣고 기뻐하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하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감사는 기독교인 연합 격려

게 한다고 한다. 물질로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사역하라는 것도 아니며 선교지로 나가라는 것도 아니다. 환란 가운데 우리가 감사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한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감돈다. 파산과 폐업의 파도가 몰아친다. 의식주 등 삶의 기초가 무너진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아우성을 친다. 무법천지 폭동의 불길도 도시를 불태운다. 계속되는 불법 폭력 사태로 삶의 현상이 불안하다. 정감을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리로 하여금 대상을 멀리서 조망해보도록 돕는다. 잘못이나 실패나 불만에 집착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우리를 실망에 이르게 한다. 반면,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선 감사하라. 이것은 단순히 낙관하거나 긍정적 사고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평안

이 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감사가 단지 마음으로만 가득하게 간직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진정한 감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모두 다 내려주시는(약1:17)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다. 감사는 특별히 함께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시편 136편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여호와께 감사

같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우리 혼자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개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길로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다른 이들의 공개적인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상기하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사드리는 것은 크리스천의 연합을 격려한다. 교회의 감사절 예배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새 가정이 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더해졌고 사소한 축복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표현할 기회가 됐다.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12:26)고 말한다.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isted.

Advertisement for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including appointment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providing publication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os Angeles and New York offices.

Large advertisement for 'Living Church' featuring a desert landscape, a church building, and text promoting a 2020 Thanksgiving service during difficult times.

- List of bullet points in Korean: 성화장로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기를 선포합니다. 성화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화장로교회는 지상의 온 교회가 함께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화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성화장로교회는 잃어버린 세상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모임은 온라인(유튜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수요일성경대학, 새벽기도회, 매일 성경낭독, 오전 11시(실시간), 오전 10시 30분(실시간or녹화), 오전 5시 30분(실시간), 오전 6:30 업로드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추수의 감사를 기쁨으로 나누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본문에 있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이 땅에서 순례자의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고 싶었던 청교도들이 당시 완전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네덜란드로 가서 11년 동안 살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역시 가톨릭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메리카로 가기로 작정하고 '스피드웰호'를 전세 내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 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배를 바꿔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들은 원래 북 버지니아에 터전을 잡고 싶었지만 그곳에는 이미 영국의 왕권이 미치고 있었기에 그곳에 정착하기에는 역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허드슨 강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뉴저지 지역에 자리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의 선장이 그곳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 사람들을 속이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플리머스'라는 장소에 정착하고 거기가 뉴저지라고 하면서 그곳에 내려주었습니다. 지리를 잘 모르는 그들은 그곳에 102명이 내려서 정착을 하였는데 1년 동안 지나면서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반수 이상이 죽어가는 가운데 인디언으로부터 얻은 옥수수 씨를 경작해서 석 달 먹을 양식을 수확해놓고 인디언들을 초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배드릴 곳을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 고생하며 신대륙 미국에 왔는데 이 신앙만큼만은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는 마음으로 맨 처음 예배당부터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자"라고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그 정신이 소위 명문대학인 IVY League대학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서야 자기 집들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미국의 추수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저들이 허드슨 강가로 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당시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았다고 탐험대를 조직하여 그곳에 와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기에 화가 난 인디언 원주민들이 백인이면 무조건 잡아 죽였는데 가장 극심하게 전쟁을 치른 곳이 바로 뉴저지

배려로 돈을 모아 주어서 6개월 전에 이곳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스칸도는 청교도들이 선량한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뉴잉글랜드 지방을 통괄하는 가장 큰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을 데리고 와서 함께 평화조약을 맺어 청교도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그 역사 배후에서 청교도의 삶을 계속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사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건지

까지의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주신 선물을 받는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니다"입니다. 좋은 일 때까지는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사랑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대답입니다. 주님을 믿으신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감사는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특별해서 마치 구름 위에 사는 신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 없이 축복 속에 담겨져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 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희, 비, 애, 락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희비애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일반인들은 희와 락은 좋아해도 비에는 싫어합니다.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희비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그 어떤 길도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

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이 보배들을 저에게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고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한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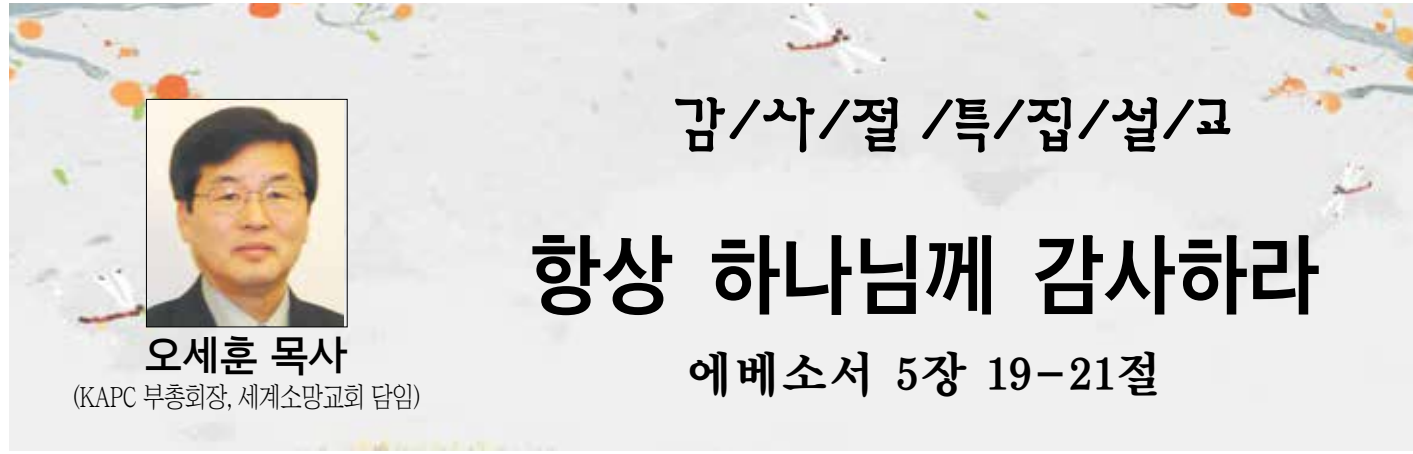
여섯째, 미국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아들을 총살시킨 자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으려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들이 생길 믿음이 생기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를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의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합니다. 2) 지금 현재를 감사합니다. 3)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여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4) 감사하는 감사를 불러일으킴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5)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6)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해집니다. 7)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시이며, 기억하여 잊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을 잊지 않고 감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하면 선장이 거짓말하여 배를 댄 북쪽의 플리머스 뉴잉글랜드 지역은 페스트가 지나가서 95%의 인디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인디언들이 백인들을 공격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들어오니까 공격은 못하고 마술사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주문으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으로 백인들을 저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을 찾아와서 영어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깜짝 놀랐는데 이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스칸도라는 분인데 이분은 전에 영국 탐험가들에게 붙잡혀서 스페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스페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영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영어를 좀 배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곳에서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고 당하는 일들이 비극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1. 감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서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조건부 감사일뿐입니다.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감사할 때

것입니다.

히브리말에 감사라는 단어에는 'Remember'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103:2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와 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배은망덕이 됩니다. 나는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를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마저 잊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감사는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어 함께 했음을 느끼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3. 감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의 마음입니다. 비애 없이 어찌 진정한 희락을 느낄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6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는데 원래 그의 형은 1년6개월이었는데 형기를 마친 다음에도 전향하지 않는다고 그 분을 계속 붙잡아 두어 1945년 8월 20일 지나서 죽이기로 작정되었는데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자 서울의 큰 교회나 부산의 여러 교회의 초청을 뿌리치고 그가 평소 섬기던 나환자촌으로 들어가서 목회를 한 분이십니다.

해방되어 얼마 안 있다가 여수, 순천 반란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폭도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장례식 때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은 답사를 하면서 "여러분 내 어찌 아들의 죽음 앞에서 긴말을 하리요 내가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으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우리는 극복합니다

어제 하루 이태리의 코로나 감염자는 4만902명, 사망자는 550명으로 최고를 찍었다. 이 땅의 역사는 전쟁과 질병과 고난으로 점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국지적으로 일어났다. 세계의 어느 특정지역에서 일어났고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큰 전쟁으로 치부되는 세계 1, 2차 대전

도 엄밀하게 보면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에 의해 아시아와 태평양의 일부에서 치르게 된 것이다. 고로 많은 지역에서는 전쟁의 소문만 들을 정도였다. 전선에서는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후방에서는 직접적 충격은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뚜렷하게 전선이 형성되

지 않았고 또한 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힘든 전쟁이다.

이놈은 아주 영악해서 자신의 출개들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자리에 남겨놓는다. 공중 화장실 손잡이 같은 곳을 이용하고 깜빡하고 손을 씻지 않는 자들을 통해 감염시키는 수작을 한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비열한지 모른다. 이놈이 세상을 뛰어나와 1년 가까이 온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유린하고 있다. 오늘까지 전 세계에서 1백3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놈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의사들의 희생이 매우 크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날들을 의료 활동을 하다 은퇴한 의사는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먼 산 구경하듯 볼 수 없어 팔을 걷어붙이고 환자들을 돌보던 중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성공한 대단한 사람들, 예술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정치가들, 문필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근육질의 젊은이가 상을 타기도 했던 30대의 보디빌더도 그놈에게 당했다고 한다.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은

당하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으니 손 쓸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자만심을 가졌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코로나가 이런 지경까지 인간을 코너로 몰아붙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태리는 병원마다 만원이라 입원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수시로 일어난다. 매일 매일 사건과 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갑자기 치명적인 병이 발견되어 병원을 찾아 수술을 요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입원실이 없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 엄청난 비극이고 고통이다. 그런 이유로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비극을 당한 가족들에게는 결코 잊으려해도 잊을 수 없는 참상일 수 있다. 그런 비극들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

며칠 전 기독교신문에서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가 6천명이라고 한다.

그들은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는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 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교사들 본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견딜 수 있겠으나 그들의 자녀들의 문제는 또 다른 고통이라고 한다. 이유는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들이 잇어버린 모국어로 학교에 다니는 일이 어렵고, 또 한두 달 만에 학교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몇 중고의 고난을 겪는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선교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선교비가 끊어진 선교사들도 많다고 하니 말이다.

나비효과라고도 하는데, 중국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코로나는 물을 만난 고기가 사방으로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온 세상을 자신의 색깔로 칠하고 있다. 마치 미국 대선에서 지지자의 성향을 따라 빨간 색, 파란색으로 칠해지듯 말이다. 온 인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자신이 감염시킨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승리감에 취해 걸걸거리며 축배를 들지도 모른다. 감염자들

은 병상에서 무력한 상태로 코에 호수를 꽂고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다.

그 뿐인가?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언성을 높여 싸운다. 구타와 이혼이 평소보다 몇 배로 많다고 보도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변에 결코 넘을 수 없는 높은 담벼락이 철조망처럼 쳐져있는 셈이다. 이태리는 감염에 따라 세부분으로 나누는데 빨간색으로 칠해진 구역은 아주 심한 곳이다. 거주이동의 제한을 받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밖에 나갈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런 때, 어떻게 견디어야 할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고 붙잡아야 한다. 이 모든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 순간까지 견뎌주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더 나아가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장구한 역사를 창조한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locielo88@naver.com

# “순례자 선조들”의 항해와 정착 그리고 추수감사절

### TGC, 메이플라워 항해 400주년 맞아 청교도들의 항해 관련 9가지 사실 소개

얼마 전 메이플라워 항해 400주년을 맞았다. 400년 전 서른다섯 명의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에 최초로 영구적인 유럽 정착지를 설립했다. 여기 미국의 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항해와 관련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아홉 가지가 있다(9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the Voyage of the Mayflower).

1. 메이플라워 항해를 이끈 종교집단은 자신들을 부패집단이라고 인식했던 영국교회로부터 분리해서 자치적인 지역교회를 형성하고자 했던 영국 프로테스탄트 집단으로 청교도 분리주의자였다.

분리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중적 형태의 교회정치를 선호했으며, 공식적인 언약을 기반으로 각각의 개별의 교회가 설립하고, 자체적으로 간부를 선출하고 교회 회원을 “보이는 성도(visible saints)”로 제한했다. 분리주의자 회중은 당시에 종교적인 자유에 좀 더 관용적인 네덜란드의 라이덴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포위공격을 두려워했던 그들은 잠시 영국으로 돌아간 다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기로 결정했다.

2. 청교도들은 신세계가 가져다줄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영국 정착촌은 제임스타운이었는데, 그곳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정착민은 5백명에 달했다. 그러나 레이덴의 망명자들은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더 단순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노력이 맞게 더 은혜롭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3. 원래는 메이플라워(Mayflower)와 스피드웰(Speedwell)이라는 두 척의 배가 8월 5일에 북미를 향해 출항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세 번이나 배에 물이 샌 스피드웰

은 결국 수리를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 배에서 선별된 일부 승객들이 메이플라워에 옮겨 뒀다. 9월 6일에 메이플라워가 마침내 출항했을 때, 102명(남성 74명, 여성 28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교도 분리주의자였다.

청교도들은 나머지 승객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빌린 일손 또는 하인들이었다. 거기에는 네 살에서 여덟 살인 네 명의 형제자매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들은 일종의 계약 하인들이었다. 그 외에 또 런던 상인에 의해 모집돼 버지니아 식민지로 향하는 농부들도 있었다.

4.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여정의 전반부 동안에는 비교적 별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반부 항해는 위험했다. 거친 바다와 폭풍으로 인해 메이플라워는 500마일 이상 코스를 벗어났다. 청교도들은 애초에 버지니아 북부(오늘날 뉴욕 주에 있는 허드슨 강 포함)에 입항할 예정이었지만, 배는

인들”은 그들이 애초에 서명한 버지니아 회사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유효한 계약도 없고 또 공식적인 정부도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청교도의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다수결 합의에 따라 스스로를 판결하기 위한 임시법이 작성됐



의 이익을 위해 그 법을 준수하라. 하나의 사회를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다. 메이플라워 서약은 신세계에서 자치를 수립한 최초의 문서였으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초창기의 성공적인 시도이기도 했다.

양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항해를 계획했고,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위의 목적의 추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약속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정치체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을 제정해 우리 식민지의 총



## 메이플라워의 102명중 약 3분의 1만 청교도 분리주의자 자치수립 첫 문서 메이플라워서약은 미국 민주주의 시도

거의 난파돼 북쪽으로 돌아 현재 매사추세츠 주 프로빈스 타운의 프로빈스 타운 항구에 도착했다. 청교도들은 정착지를 결정하기 위해 케이프코드 주변 지역을 탐험했는데 한 달 반을 보내게 된다.

5. 메이플라워가 버지니아에 상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다. 나중에 메이플라워 서약(Compact)이라고 알려진 이 협정은 식민지 주민들이 자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왕 제임스에게 충성스러운 신분을 유지할 것이란 것을 입증하는 짧은 문서였다.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식민지

6. 메이플라워 서약의 전체 문서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대영 제국, 프랑스 및 북아일랜드의 신, 국왕, 신앙의 수호자, 등등의 은총을 통해, 숭배하는 군주인 국왕 제임스 1세(잉글랜드 왕) 제임스의 충실한 신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

체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사정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이곳 케이프코드에서 우리의 이름을 서명한 바와 같다. 제임스 영국 국왕이 통치하며 프랑스, 아일랜드 11년째,

## 시론

(2면에서 계속)  
오늘날 한국사회에 각종 물의를 일으키며 범죄수사 대상이 된 자들 가운데 새벽기도를 다닌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독실한 신자로서 금주금연을 하지 않는다는 성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이러저러쿵 말이 많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보살피며 사회의 사각지대를 보살피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실천하는 자들은 사회의 지위 고하와 재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심지어 질병에 걸려 죽을 앞에 두고 있는 환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만복을 누리며 자신들의 현 처지에 대해 행복해 하며 감사함을 금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앞에서 열거한 행복의 조건을 진정한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생한다는 확신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에게 맡겨

진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다. 그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동안 가난하고 여러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것으로 여기며 그 고난을 즐긴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들 아담소위 행복의 조건을 진정한 행복의 조건으로 만드는 자들이

그리고 스코틀랜드 54년째 통치년, 서기 1620년 11월 11일

7. 청교도들과 이방인들은 혹독한 뉴잉글랜드의 겨울을 대비하지 못했다. 원주민들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았지만 피난처가 없었기에 계속해서 배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괴혈병, 폐렴, 결핵이 혼합된 것으로 보이는 전염병이 겨울 내내 이들을 괴롭혔다. 봄이 왔을 때 정착민 53명과 선원의 절반만이 살아남았다. 봄이 되자 정착민들은 땅에 오두막을 지었고, 1621년 3월 21일에 마침내 메이플라워에서 하선할 수 있었다.

8. 정착민의 건강과 경제 상태가 개선됐고, 그해 가을에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 주지사는 이웃 아메리카 원주민을 초대해 그해의 수확을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축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플리머스 식민지는 대부분의 지역 부족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착지가 앞으로 유럽에서 올 이민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만들었다. 1640년대 중반까지 플리머스의 인구는 3천명으로 늘어났다(그럼에도 메이플라워가 착륙한 지 거의 10년 후에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에 정착한 북쪽의 청교도 이웃보다는 여전히 적은 숫자였다).

9. 플리머스의 청교도 식민자들은 19세기 초까지 “순례자”로 불렸다. 그렇게 부른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참조는 브래드포드 주지사가 “순례자”가 돼 네덜란드를 떠난 “성도”에 대해 언급한 원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20년 플리머스 창립 200주년에 정치가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가 그들을 “순례자 선조(Pilgrim Fathers)”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다. 정말 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 법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확실히 행복한 생활이다.

[알림] 본지 11월 28일자는 정기휴간에 따라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은혜의 원형질

코로나 시기에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해서 새벽부흥회를 영상으로 3주간 진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온전한 변화의 바람으로부터, 가정과 가문의 변화, 교회와 삶의 전 영역의 변화에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원형질의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은혜는 대단히 큰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모든 것 속에 은혜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나의 아주 개인적 바람인 한국 신문과 뉴스를 절독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본다. 뉴스를 보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어수선하다면 끊어버려야 마땅할 것인데 말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인생연환과 함께 익어가는 세월의 무게를 잘 지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함을 본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절제력이 없어 그렇다 치더라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원숙한 품격을 가질만하다. 그러나 어르신 중에도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아 어린아

람이 이 땅에 어디 있으랴.

은혜는 연약함과 함께

은혜는 부족함과 직결된다. 구원의 빛 가운데, 자신의 비참함과 형편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삶에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남다른 데가 있었고 로마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세상 살아가며 자신감이 넘치는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한 뒤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급 전락한 인생이 되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무 소용 없게 된 인생이 된 것이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곁을 수도 없고, 눈에 덮인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지 않으면 앞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동안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는 능력들이 이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그의 비참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스스로를 죄인중의 괴수라고 할 만한 일을 너무나 담대히 행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해하고자 하였던 바로 그 원수 같은 존재가 일순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로 드러났을 때,

가치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보면 연약함이 나를 믿음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게 한 축복의 동력 장치가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 부족함을 통해 세상의 썩어질 자랑거리가 자신을 매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밝은 빛의 조명 아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는 정말 은혜를 아는 복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은혜를 맛보아 누리 고자 할 때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하게 지으시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한다. 완전하신 창조주의 무능력을 말함이 아니다. 완전하게 지으셨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완전해지는 제한적 조건이 붙는 내용이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넘보는 존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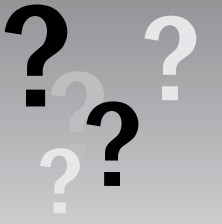
몸에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는가? 내 몸에 붙어 다니는 가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영광스런 은혜의 빛과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 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적시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면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다"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망하지만 평생 이를 수 없었던 그 삼일을, 지금 우리는 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감격이 다르다. 연약함에 대한 간절함의 차이이다. 그러면 인생은 모두가 장애와 어려움을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다. 평생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막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울며부며 주님 앞에 나아온다. 이런 모습도 잘 찾아보기 어려운 은혜가 탁한 세상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이번 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은 기독교신앙의 자유와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고 최고도 정신을 유지하는 길로 정치 지도자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볼 때 잘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미타에서 권명옥 권사

**A:** 사람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나 일한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의 진정한 진가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신자들이나 좌파 주류언론이 볼 때 그를 괴팍한 자로 우스꽝스럽게 보는 자로 풍자하는 면이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perspective)이 다릅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가치를 수호한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역대 미 대통령 중에 이처럼 소신 있고 담대하게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사야서에 바벨론 포로로 고생하던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생활 하도록 자유를 허락하고 명령한 파사의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독교 가치를 수호한 일을 보통 미국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나 다시 정리해보면 1)대통령이 되자마자 백악관 홈페이지에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오바마가 지원해오던 낙태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가치를 수호한 지도자

원금을 다 끊었습니다. 3)백악관의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하였습니다. 4)국무회의 할 때 기도 시작하였습니다(그렇게 한 대통령이 없음). 5)매주 수요일에 백악관에서 행정부 관리들이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6)리버티신학원 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목사님들은 마음껏 설교하라. 우리는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7)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발언하지 못하게 한 존슨 수정안 폐지를 하였습니다. 8)UN과 온 중동이 다 반대하는데도 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는 발표를 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9)미국은 사회주의를 절대 용납 않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10)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1)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소유하고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2)크리스마스 정신을 죽이려는 그림자 정부를 대항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3)생물학적 성만을 성으로 인정한다는 강조했습니다. 14)공립학교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서 명하였습니다.

EU를 장악한 신좌파 네오막시즘(left side, neo-maxism)은 케네디 이후 미국에서 세력을 확대했고 클린턴-오바마 때는 온갖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의 전통적 기독교 가치를 현저하게 해체했습니다. 미국이 2015년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기독교의 생존을 위해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 정치세력(오바마 클린턴 신좌파노선)에 대응하여 이웃사이였던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은 네오막시즘과 맞서 싸웠고 트럼프는 그간 기독교 가치를 수호하여 그 역할을 훌륭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적은 밝혀질 것입니다. 앞으로 제 2의 트럼프 같은 기독교 정치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의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도 아주 훌륭한 기독교 가치를 가진 정치 지도자입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슬픈 탄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달으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결같은 삶을 이어가야 한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을 이기는 은혜

- 한계, 약점, 부족함 -

이 같은 문제로 교회 안에서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는 것을 본다. 자신도 모르게 열을 내고, 거친 성격 다 드러내 보인 다음 그 후회를 반복하며, 사람에게 위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한 그 위로는 또 다시 설화가 되고, 마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세상과 교회, 모두 은혜

이처럼 개인적인 문제에서나 연륜 있으신 어르신들의 문제나, 모든 것에 오직 은혜가 필요한 것을 본다. 은혜는 그저 교회에서만 필요하고, 세상에서는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처럼 그렇게 살아야 잘사는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든, 세상과 교회 모두가 한결같이 필요한 것이 오직 은혜이다. 신문하나 보는 것도 마음대로 어겨지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녀와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면,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어 힘을 계속 깨닫게 된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보면 결론은 나 자신과 그에게 함께,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힘을 절실히 알게 한다. 상담대화를 하면서는 온유함을 지키는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으려면 거기에 은혜가 필요하다. 한결같은 사

그 자신은 정말 황망했을 것이다. 그가 모든 지식과 힘을 다해 필박하였던 예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그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 바쳐 따라야 할 참된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어찌된 낙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할 때에,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판단과 학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괴로움을 맛보았을 것이다. 게다가 몸에는 가시 같은 질병까지 있어서 자신의 영육을 괴롭히는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었다. 과거 자신의 약함과 허물에 대하여, 자신의 몸의 가시로 받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는 것이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부여하셨다는 뜻이다. 그 은혜가 그 모든 연약함들의 조건들, 세상조건의 허물어짐, 반역에 열심이었던 일들, 몸의 연약한 질병 등의 모든 육신의 조건들까지 넘어설만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이다.

연약함의 축복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계획임을 믿어야 한다. 그 은혜의 빛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을 만족하는 삶으로 고백하게 한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누리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날마다 그 은혜를 계수하며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순종으로 잘 지키게 된다.

연약함의 자리, 감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생각만 하여도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가? 한계와 장애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본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에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중증 장애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서 최초의 인문학 학위를 받았고 사회운동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약 내가 삼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첫째 날에는 진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형 화재가 발생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만하여도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를 누리 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연결되면, 영광 찬송 기쁨의 주제가 된다.

연약한 자리, 은혜의 자리

상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의 강력함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과 온전하심은 은혜가 폭포수처럼 인생에게 부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이다. 바울에게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다.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외모도 그렇게 호감 가는 형은 아니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질병도 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이 유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였다. 인생의 강함은 무엇인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셀라코 다야크(Selako Dayak)

"다야크"란 이름의 집단적 용어는 주로 많은 비무슬림 인종과 언어적 집단을 묘사할 때 사용하곤 했다. 흔히 이슬람으로 전도된 사람들이 잠시나마 다야크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다야크인이라 불리우기보다 오랑 멜라유(Orang Melayu)라고 칭함 받기를 더 원한다. 그들이 큰 강줄기의 제방을 따라 거주하고 화전민식 살농사를 하거나 또한 숲에서 등나무, 경질목재, 고무, 수



지, 그리고 동물가죽을 채취하며 생활한다. 다야크인들을 세분하면 대륙 다야크인과 해상 다야크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로 유렵식 종족 명명법). 대륙 다야크인들의 대부분이 셀라코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에서 폰티아낙(Pontianak) 시 뒤편 강줄기를 따라 거주하고 있다.

삶의 모습

셀라코 다야크인들은 평균 해발 수백 피트 지대의 구비구비 구부러진 구름 지대에서 살고 있다. 토지는 석회암 봉우

리에 의해 간헐적으로 끊어진 산림지대로 혹은 재개발 숲으로 덮여있다. 강수량은 연평균 150인치이고, 우기(몬순철)는 10월에서 3월까지다. 낮 기온은 화씨 최고85도 밤 기온은 75도 정도다.

셀라코 다야크인들은 주로 쌀 재배를 하고 살지만 낚시나 사냥을 하기도 한다. 사정이 어려운 해에는 야생사과(종려나무의 일종)를 대체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벌기 위한 곡물로 고무와 커피를 재배한다. 필요한 소금을 얻기 위해 다야크인들은 해변사람들과 접촉을 유지한다.

셀라코 다야크인들의 촌락은 크고 비교적 장기적이고 대개 강 가까이에 위치한다. 가끔 몇 개의 공동체가 함께 촌락으로부터 모인다. 보통은 각 촌락마다 한개 이상의 긴 집이

있고 이들은 통로에 의해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촌락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마을회관(Headhouse)이다. 이 회관은 남성들이 공동체의 위원회와 의식을 위한 센터의 다양한 목적의 회관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 마을회관은 구조는 크고 둥근 방 또는 원주 모양의 높은 지붕으로 된 홀을 갖는데 보통 30피트 높이까지 오르는 대나무 말뚝위에 건축한다. 마을회관의 입구는 마루로 된 통풍 문이다.

가속 한 세대는 셀라코 다야크의 사회의 기본단위를 이룬다. 가족들은 가까이서 상호 같은 금기사항이나 미신들을 준수하며 살고 있다. 세습적인 가족의 유산은 토지사용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혼을 위해 드물지만 신부의 값을 치른다. 대신 신랑 측

아버지는 신부 측 아버지에게 베풀 아자나무 씨와 라임(주수원료)을 선물한다. (이 혼합물은 썬을 때 약한 자극제) 예물 접수 후 결혼식이 신랑신부 인척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신앙

셀라코 다야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과 토속종교를 따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들이 따르고 있는 다른 믿음에 의해 영적 먹구름이 끼어 있다는 것이다. 조상의 신을 숭배하고 마법의 힘과 다른 숭배대상을 가져야 된다는 사고로 인해 돌 앞에 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전쟁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조상신을 모신 곳은 종교적인 의식과 일반축제 연합으로

촌락 의식을 통해 발견된다. 독특한 음식과 금기활동들이 마을과 가족들 중 여인들로부터 대를 이어 유전돼 전해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과거에는 다야크 영토가 말레이아 변방 침략자들에 의해 남양됐다. 또한 다야크 해의 해적들이 목을 따가는 도발적 행위로 인해 그들의 많은 영토를 상실하기도 했다. 셀라코 다야크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오랜 역사적 착취행위로 인해 "노예 콤플렉스"를 오늘날까지 갖고 있다. 종보기도를 통해 셀라코 다야크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모더나, 코로나 백신 95% 효과 발표...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4.5%의 예방률을 나타냈다는 중간결과가 나왔다.



모더나는 백신 개발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참여한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화이자가 예방률 90% 이상의 중간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로써 미국은 올해 안으로 긴급 사용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6000만회분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3상 임상시험의 긍정적인 중간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가 개발한 백신 후보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검증한 것"이라면서 "백신이 95%의 사람들로 하여금 병을 얻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사람들의 마음, 죽음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하며 운송·보관해야 하지만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은 일반적인 냉장 온도인 섭씨 2-8도에서 30일까지 보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영하 20도에서는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모더나는 올해 안에 약 2000만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미 수백만회분의 백신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스테판 호게 모더나 의장은 "우리는 코로나19를 멈출 수 있는 백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몇 시간 안에 선적을 완료하고 즉각적으로 배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면서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가능하다고 말해왔지만 확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 김미하원 당선...한국계 하원의원 4명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영 김(한국명 김영옥·57·사진) 공화당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 김 당선인에 앞서 이미 한국계 후보 3명이 당선을 확정할 바 있어 내년 개원하는 117대 하원에서는 한국계 의원 4명이 활약할 전망이다. 한국계 당선인 4명 중 3명이 여성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서 50.6%를 얻어 민주당 현역 길 시스템로스 의원을 1.2% 포인트 차로 이겼다.

김 당선인은 친한파로 잘 알려진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이 2018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김 당선인은 그해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개표 초반 시스네로스 의원을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하는 듯했으나, 막판 우편투표에서 추격을 허용해 역전패했다.

김 당선인의 합류로 116대 하원에서 1명에 불

과했던 한국계 의원은 117대에서 4명으로 늘었다. 2년 전 처음 하원에 입성한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은 일찌감치 재선을 확정했다. 이어 한국명 '순자'로 알려진 메릴린 스트리랜드(민주·워싱턴주) 후보와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공화·캘리포니아주) 후보도 승리를 거뒀다.

바이든, 행정부 제안서 '친낙태 정책' 예고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내년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낙태 반대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의 공식적 결과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나, 여러 매체에서 바이든 후보를 승자로 선언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는 이미 조기 행정 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제안'을 공개했다. 이 안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반대 계획 중 일부를 철회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취임 후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고, 낙태 서비스 제공 업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다시 자금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따른 피임 보험을 포함한 낙태 및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된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 낙태를 시술하거나 가족계획법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다.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했으나, 그의 후임자인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 취임 후 이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첫 임기가 시작되자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복원시켰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시티 정책을 확정해, 글로벌 의료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 및 하도급 계약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9년 '생명 보호'(Protect Life) 규칙을 제정해 '타이틀 X', 즉 가족계획 기금을 받는 의료 시설이 가족 계획의 한 방법으로 낙태를 수행, 홍보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국 최대 낙태 사업체인 '가족계획연맹'은 이 규칙을 준수하는 대신 '타이틀 X' 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

이와 관련, CP는 낙태 후원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다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계획은, '생명 보호' 규칙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피임 의무를 복원할 경우, 종교단체 고용주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해 소속 직원의 건강 보험에서 피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인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를 성문화하고, 낙태 시술에 지불되는 의료 자금을 제한하고 있는 '하이드 개정안'(Hyde Amendment)을 폐지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해 왔다. 두 제안 모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낙태 반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 외에도, 비판적인 인종 이론 교육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에 취약한 국가에 대해 부과한 여행 금지 명령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및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명령을 시행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카말라 해리스 역시 유명한 낙태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

美 은사주의 목회자들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했던 미국 은사주의(Charismatics) 지도자들은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예언사역자 캣 커(Kat Kerr)는 최근 '더 엘리아 리스트' 생방송에서 "당신이 무엇을 듣든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4년 동안 더 집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당신의 길을 행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네시주 '리제너레이션 내슈빌'(Regeneration-Nashville) 설립자인 켄트 크리스마스(Kent Christmas)는 "최근 많은 이들이 선거 결과에 실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했다가 사과하는 분위기지만, 이를 믿지 않았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목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정치적이거나 아니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이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전쟁이고 나라의 운명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의 무지를 몰아내는 것"이라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여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이 운명을 맞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사자가 이 나라에서 다시 포효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 소재 '워드 오브 라이프'(Word of Life) 교회 마이크 톰슨(Mike Thompson) 목사는 평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확언해 왔다.

톰슨 목사는 지난 주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지금 당장 예언자들과 예언 안에 있는 자들, 예언을 따르는 자들에게 많은 박해가 닥칠 것임을 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부흥에 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서 "올해 대선은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예레미야 존슨 미니스트리'(Jeremiah Johnson Ministry, JJM)를 이끄는 예레미야 존슨 목사는 지난 4일 CP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후보가 선제적으로 당선을 선언했지만, 난 선거가 끝났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존슨 목사는 "거짓의 영이 미국에서 신뢰받는 수많은 예언적 목소리의 입을 가득 채웠든지,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우리가 선거를 가로채기 위한 극악무도하고 사악한 계획을 목격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라고 했다.

한편 기독교 랩 가수인 마커스 로저스(Marcus Rogers)도 최근까지 성령계서 트럼프의 재선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대법원으로 가게 될 선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서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바이든이 1월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내가 본 환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여쭙볼 것"이라고 했다.

전세계 145개국서 기독교인 박해

기독교인은 전 세계 어떤 종교인보다 더 많은 박해를 상시로 받고 있으며, 145개국에서 박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밝혔다.



15일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종교 제한 국가는 2007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박해 상승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정책, 공권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 정부의 '종교 제한 지수'는 2018년까지 평균 2.9였다. 이는 2007년 퓨리서치가 이 조사를 처음 실시했을 때의 1.8보다 1.1 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다(지수는 20개 항목을 기초로 작성되며 10이 최고점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박해가 심하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종교 제한국이다. 198개국 중 종교 제한 지수는 9.3을 기록했다. 이란은 8.5로 2위, 말레이시아와 몰디브가 각각 8.2,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각각 7.9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 박해가 심한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또한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박해를 받은 종교인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일상적이었는데, 괴롭힘에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폭력과 육체적 공격, 살해 등을 포함한다고 퓨리서치센터는 밝혔다. 괴롭힘은 우발적인 것이기보다는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가 바탕이 되어 타겟으로 삼은 경우가 작용했다고 퓨리서치센터는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인은 145개국, 무슬림은 139개국에서 박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인들은 88개국에서 박해를 경험했다. 퓨리서치센터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에 대한 박해가 전 세계에서 일관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사례를 공개했다.

부룬디에서는 한 기독교인 남성이 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투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매를 맞고 교도소에 갇혔다가 사망했다. 레바논에서는 3명의 형제가 상점에 들어갔다가 한 이슬람 수니파 남성이 신성모독죄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도 했다.

구글링 중 기독교 민주화운동가

기독교와 중국 문화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 강사로 나선 기독교 민주화 운동가 중국 당국에 소환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저명한 작가이자 민주주의 운동가인 란(Ran) 씨를 소환해 밤 11시까지 구글링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이에 "난 일도 강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말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복음 전도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경찰서에 여러 번 소환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안은 설교자가 반정부적 이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설교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적 표현의 자유가 없다. 삼자교회에는 종교적 자유가 없다"고 했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10. 박동완(1885-1941)

박동완(朴東完)은 1885년 12월 27일에 경기도 포천군 신음리에서 통훈감목관이었던 박형순 선생의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명은 고봉(高峯)이다. 영어로는 Tong Wan Pak 또는 Dong Wan Pak으로 표기했다. 그는 독선생을 두고 한문을 공부하였으며 양사동 소학교를 졸업하고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여 1897년에 포천의 명문 집안인 현석운의 차녀 현미리암과 서울에서 결혼하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육당 최남선은 동서지간이다. 관립 고등 소학교와 한성중학교에서 1년을 수학하고 한성 외국어학교 영어과에서 3년을 수학하였다. 1906년에 농상공부기수에 6품으로 임용되었다가 1907년에 배재학당에 입학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1908년에 정동감리교회에서 G. H. 존스(조원시)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1912년 말에 배재학당 대학부에서 나와 1913년에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법률을 공부하고 1915년에 졸업하였다.

박동완은 1922년 2월에 서울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엘머 M. 케이틀 선교사가 하와이 감리교 감리사인 윌리엄 H. 프라이에게 박동완을 호환한인감리교회에 추천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해 8월에 프라이 감독은 허버트 웰치 감독으로부터 같은 편지를 받았으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유는 호환한인교회는 안수 받은 목사로 하와이에 정착할 목회자를 찾고 있고, 박 전도사의 정치 경력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여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와하아와 본동 한인기독교회

박동완은 낙원이라는 하와이를 동



박동완 목사

었다. 하와이승객자료에 따르면 그는 1928년 8월 21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텐오 마루를 타고 그달 31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1928년 10월 18일자 '신한민보'는 "박동완 목사는... 10월 8일 선편에 무사 안착하였다더라"고 보도했다. 그는 1928년 10월에 와하아와 한인기독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본 교회는 1919년에 약 20명의 동포 팍 거리의 끝에 있는 집을 세내어 예배를 드리다가 1924년에 길 하나 건너 레후아스트리트 246번지로 옮기고 전임목사 없이 와이알루아교회의 최창덕 목사가 시간제로 청빙받아 시무했으니 박동완이 초대목사라는 영예를 얻었다.

박동완은 부임하자마자 한인거주지를 직접 심방하여 전도에 전념하였다. 1929년에 최초의 성가대를 조직하였고, 그해 12월에 90여 명의 학생이 예배당에 모여 농촌학생연합회를 조직하였는데 한인 전체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학부형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임원에는 회장에 김피터, 부회장에 위제순, 서기에 양일년, 재무에 감하람, 고문에 강영각이었다. 이 밖에도 각 지방 지부에 지방회와 지방 임원들이 있어 본회 사업을 진행하였다.

박동완이 1930년 인구조사에 참여했다. 44세의 기혼자로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가족을 한국어로 두고 혼자서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묵화에만 전념하다가 뇌경색에 걸렸다.

1931년 박동완은 김성기, 안시흥,

없습니다"라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하였고, 그의 논문 '조선감리교회 선교 50주년을 맞으면서'에서 국내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합동하여 순전한 조선교회를 만들자는 여론이 차차 머리를 들고 나선다면 그 귀추에 주목한다는 등 조선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1934년 4월 1일 부활주일 아침 6시에 산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날 남녀아동 11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날 민찬호 목사가 '예수의 못 박힌 원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여 일반 교우의 잠자는 신심을 분기시켰다. 주일학교에서는 계란과 사방을 바구니에 담아 150여 명 주일학교 학생에게 나누어주어 예수 부활하신 정신을 전진난만한 어린 학생들의 뇌에 불어넣었다. 그달 15일에는 전 교인이 하우라 공원에 가서 야외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최창덕 목사가 전도하여 일반 교우의 신령한 정신을 진작시켰으며 남녀 200여 명이 모여 유쾌하게 하루를 지내고 4시에 귀가했다.



제16회 연회 기념사진(왼쪽에서 두 번째가 박동완 목사)

5, 6년 동안 지방교회를 순회 시찰하지 못하다가 중앙이사국장 대리의 자격으로 박동완이 1934년 6월 8일 오후 4시에 순행전도여행을 떠났다. 이튿날 아침 7시에 힐로 선장에 도착

방을 순회전도했다.

그해 7월에 본 교회 국어학교 학부형이 교회위원을 청소하였고, 화초를 심었으며, 교회마당에 모래를 퍼서 자녀들이 놀 운동장을 만들었다.

1935년 1월 박동완은 중앙이사국장에게 취임했다. 이듬해 1월 10일에 하와이한인기독교회 제16회 연회가 모였다. 그해에 박동완은 동지회 와하아와 지방대표로 활동했다.

1938년에는 어린 교인 47명과 유아 세례자 121명을 포함하여 교인수가 200여 명이였다. 주일학교 교장에 최창덕 목사였고, 그는 주일학교 학생 50명이었고, 작년 1년 경비가 556달러 28센트였다. 교회 대지가 4,500달러였다. 그해 그는 한인 선교부 이사회의 제1 부이사장이었는데 부장은 이승만이었고, 제2 부이사장은 이종관 목사였다. 박동완은 이듬해 한인선교부 연회에 참석하여 김형식 목사와 장 부 목사와 함께 한인선교부장 성정위원이 되었다.

1940년 와하아와한인기독교회에 12명의 임원과 206명의 교인, 110명의 주일학교 학생, 49명의 청년면려회 회원과 45명의 국어학교 학생이 있었다. 1,280달러의 재정은 2년 전과 비교해 두 배였다. 토지와 건물 가격 4,500달러는 1938년과 같았다.

박동완은 그의 재직기간 전반을 통하여 교인들의 심일종 중 일부는 한인선교회에 보내 한국의 미자립교회에 후원원으로 쓰였다.

카우아이 감리교회 목사

박동완은 1940년 카우아이 미국 감리교 목사로 전출되었다. 10년 넘게 교회생활을 했던 교인들은 전별회를 개최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며 급시계를 비롯하여 가방과 각종 기념품을 전달했다.

Dong Wan Rev. Pastor Korean Church Wahiawa

1938년 호환 전파부에 개재된 박동완

이듬해 박동완은 동지회, 국민회, 독립당, 부인 구제회, 영남부인회, 부인 호상회, 동맹저금회, 천주교, 불교, 천도교, 미국감리교회, 기독교, 성공회, 대학사회, 기독교학생회로 구성된 각 단체 연합 임시대표회의 위원장을 맡은 지 1주일 뒤인 1941년 2월 23일 오후 2시에 하와이 호환 정부병원에서 향년 56세로 별세했다. 삼일기념준비위원회 주최로 3월 1일에 사회장으로 동포 700여 명이 애도하였다. 그의 유해가 한 달 뒤 할레렐렐 목사의 집례로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고, 1962년 대한민국정부가 그에게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면서 4년 뒤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했다.

damien.sohn@gmail.com

### 33인 민족대표 중 한 사람으로 2년 옥고 후 전도사 임명 받아 사역 1928년 와하아와 한인기독교회 목사 부임, '한인기독교보' 발행 등

경하였고, 하와이동포 목회가 그의 숙원이었다. 그가 출소한 지 3개월이던



와하아와 한인기독교회

1922년 2월에 서울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엘머 M. 케이틀 선교사가 하와이 감리교 감리사인 윌리엄 H. 프라이에게 박동완을 호환한인감리교회에 추천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해 8월에 프라이 감독은 허버트 웰치 감독으로부터 같은 편지를 받았으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유는 호환한인교회는 안수 받은 목사로 하와이에 정착할 목회자를 찾고 있고, 박 전도사의 정치 경력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여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정작 서울에 거주하던 박동완이 하와이로 가게 된 데는 하와이 민찬호 목사와 한국의 입두화 목사의 주선

이종관, 민한옥, 민찬호, 조석진, 백나현, 이승만, 최성대 등과 함께 한인선교부 9인 이사원이었다. 9인 이사원은 1/3이 목사이고 2/3은 평신도로 구성했다. 박동완은 하와이 학생보국방문단을 인솔하여 귀국하여 그해 6월부터 3개월간 머무르며 중앙YMCA 회관 등에서 "재류재국동포의 근황"과 "재국조선인의 신앙생활"이란 연례 강연했다.

1934년 1월 14일에 호환한인기독교회에서 이종관 목사와 함께 장로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해 7월에 박동완은 '한인기독교보'를 재창간하고 편집인 임명되었다. 박동완은 창간호 '편집 뒤의 말'에 '신생명'이 폐간된 지 "꼭 10년 만에 다시 글을 쓰려고 붓대를 잡으니 이런 생각, 저런 소감이 교집하여 다 돌아와서 한꺼번에 쓰고 싶더니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다 못 쓰고 또는 문장도 끝그럽고 말도 거칩니다. 그러나 속담에 쓴 배도 맛들 일 탓이라는 말과 같이 독자여러분에게 맡길 수밖에

하였고, 다음날 주일에 장 봉 목사의 힐로교회에서 설교하였다. 11일에 장 목사와 함께 학갈나우 상동교회에서 밤에 예배하고 한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12일에 옥갈나, 파울노, 호노카를 각각 심방하고 다시 돌아서 최근에 쓴 옥갈나 캠프교회에서 예배보고 온 후 국가아우에 새로 선 교회를 심방했다. 13일에 국가아우에서 설교하고 이튿날 아침에 힐로로 돌아왔다. 14일에 기차로 가포호교회를 찾아 예배드리고 힐로로 돌아왔다. 15일에 자동차로 고나로 가서 본 교회에서 예배보고 여섯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인근 켈넨룩에 최근에 새로 선 교회를 심방했다. 17일 오후에 마위로 향하였고, 파이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과 아동 2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19일 오전 10시에 하나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20일 아침 9시에 화이아를 향했다. 이곳 삼일 저녁 기도회에서 설교했다. 21일 오전에 가롤루이를 심방하고 22일 아침 6시 반에 출발하여 돌아왔다. 그는 하와이와 마우 등 10여 지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b>뉴욕부클링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금요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사백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www.c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 안무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베이사이드 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평생세례: 매주 토요일 오전 9: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b>사랑의동산교회</b>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604)584-5780, www.pccov.org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45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찬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현지인 교회</b>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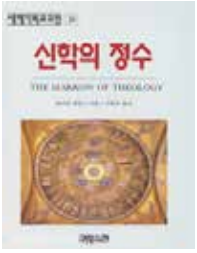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일기도회: 화일, 셋, 다섯, 일요일 오후 7:30 금요헌양 기도회: 목요일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	--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0)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3)



학문이다.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파송되어 신적인 일들을 다루고 하나님을 지향하며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우리의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지침이며 총괄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테오조니아),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사역하는) 것(테우르키아)이라고 부를 수 있다.

1. 주요 주제 - 하나님을 향하는 삶

첫 번째로 그의 주제는 극히 단순하고 간결하다. 그가 생각하는 신학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교리였다. 그는 신학이 인간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삶으로 응답하도록 해야 하며 인간들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딤후2:12)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한다. 본서는 근본적으로는 종교개혁의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명확성을 가지고 점차 그것을 체계화하였다. 다음은 그가 말하는 책의 내용의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1)신학의 의미  
이 책에서 표현되는 신학은 철저히 실천적 기독교로서 단순히 지성, 의지 또는 감정이 아닌

었다. 그에게는 실천적 신앙이 신학의 중심 항목이었다.

(1)하나님에 대해 사는 우리  
"신학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리 혹은 가르침이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신학을 교리라고 지칭한 것은 이를 다른 분야와 같이 자연과 인간의 탐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유래된 분야라는 것을 명기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 1장 11-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2)신학의 기본원리  
다른 학문의 원리들은 우리

께서 사신 것이라"함과 같다.

행복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유조니아)이 행복하게 사는 것(유우다이모니아)보다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만족과 관련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에 대하여 사는 선한 삶으로 정의될 수 있다.

(3)신학의 주제인 의지적 실천  
더욱이 이러한 삶은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의지에 따라 행하게 되는 전인적인 영적인 활동이며, 분명히 인간의 의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학의 고유한 최초의 주제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마음)에서 남이니라"라는 말씀대로

신학을 지식보다 행동에 대한 학문으로 인지...복종으로 이끄는 데 사용  
신학의 두 부분 신앙과 순종은 실행될 때 결합하나 규범엔 서로 구분

라, 전인격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는 이 책에서 열정적으로 사상과 삶이 실천적이고 생명적인 기독교의 단일체임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는 신학이 일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법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는 신학을 지식보다는 행동에 대한 학문으로 인지하였다. 칼빈이 행동하는 신앙을 지식보다 경시한 것은 아니지만, 칼빈의 신학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지식에 초점을 둔 반면에, 에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학의 목적이거나 목표가 아니었다. 그에 있어 신학의 목적은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이끄는 데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이므로 감각적 지각, 관찰, 경험, 귀납법을 통해 발견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 하지만 신학의 기본원리들은 연구와 근면의 의해 발견될지라도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마 16:17).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종류의 삶은 살아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므로 신학적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일치되어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게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하리라...내 안에 그리스도

이렇게 의지에서 나오는 삶에서 신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학이 사변적 분야가 아니라 실천적 분야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신학은 이를 특별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신학에는 이러한 최종 목적 혹은 그 목적에 연관된 수단들과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학의 모든 내용은 실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러한 삶의 실천이 신학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고찰되므로 경제, 도덕, 정치, 법 제정에 있어서 올바르게 사는 것과 관련된 보편적 진리에 대한 교훈들 중에 신학과 정당하게 관련되지 않는 교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고귀하며 궁극적인

은 신앙의 원리의 작용이 순종이므로, 양자가 신학의 진정한 부분들이며 다른 것들이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율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구약성경에서는 신학이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전12:13).

신앙과 순종은 실행되어질 때 항상 함께 결합된다. 하지만 이들은 본성상, 그리고 이들을 규제하는 규범에 있어서는 서로 구분된다. 본성의 질서에 있어서도 구분된다. 신앙이 첫 번째 위치를 점하고, 영적 순종은 두 번째 위치를 점한다. 왜냐하면 새 생명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생동적인 행위들이나 삶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youns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생명을 만난 자

오늘 새벽엔 차가운 바람에 흔까지 세척될 것 같은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려 생명의 싱그러움을 만끽해 본다. 생명!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고 했는데 그 말씀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른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리라. 정말 나에게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보며 그 아기에겐 묻고 싶다. 생명의 신비함을 아는지를... 엄마 뱃속을 빠져 나오기 위한 그 죽음 같은 고통을 통해 열리는 생명의 세계를 맞이하는 아기는, 아니 엄마는 그 생명의 신비함을 알까.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스물네 시간이 같은 날이 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수많은 생로병사를 겪으며 매일 죽는 연습을 하며 사는 우리네 인생들은 그 생명의 신비함을 알까.

그렇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를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리라.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이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내 기도는 자꾸 뭉뚱하게 드리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을 더 포기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본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는 녹슬지 않는 반짝임이 보인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리라. 삶을 더 정성스럽게 살아야겠구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야겠구나. 삶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고 가야겠구나 하는 다짐들이 꿈틀거리며 올라온다. 그렇다. 생명을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생명을 향해 내 삶을 공경하며 조금씩 작품을 만들어 가다보면 내가 감히 기대하지 않는 삶을 만나리라.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명을 만난 자들에게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일거리들이 따라오며 사랑이 있고 용서가 되어지며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줄줄이 따라오리라.

그렇다.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력한다. 풀과 나무들도 무표정하게 태연해 오 그들은 땅에 귀를 기울이면서 혹독한 겨울을 참아내고 인내하여 새봄의 싹을 소중하게 키워내고 자결하는 뜨거운 태양빛을 몸으로 막아내며 타죽지 않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시사철 죽을힘을 다한다. 생명을 만난 자는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아니 더 싱그러움 탕탕한 생명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향유가 담긴 옥합은 깨져야 온방안이 향유로 가득하듯, 내 자아가 깨지고 깨져서 예수 향기로 진동할 때 생명은 내 안에서 진짜 생명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리라. 이 깊은 가을의 길목에서 제 색깔로 물드는 나무들을 보며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계절의 싱그러움 생명을 이어받아 각기 제 색깔로 철이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바람해 본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영양대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영양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p>	<p><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양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대예배: 오후 2:20 영양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2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446-6200,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요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b>머무는교회</b>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우일교회 정수)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교인정수)</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l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Comita, CA 90717</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대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성인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chc.org / www.bethelc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열매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b>엘피스사역원</b>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선교회(교회) 협동목사 선교사: (월-금) 오전 9:45(분당) 3부: 오전 11:00 사역: 1. 영성사역 2. 가정사역 3. 청년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대예배: 오후 7:20(일)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새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일)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9:45(1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핼(PIM)선교회, 교회</b>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대예배: 오전 1:00 교목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p><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모임: "아침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긍정적인 해석과 감사”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인생은 엄연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현실은 언제나 척박하고 애로들이 많고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현실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실들입니다. 바울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시대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인생은 엄연히 주어지는 현실

들에 대하여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어진 그 인생을 해석하는 경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살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물론 그 미래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인생은 현실을 넘어 해석에 따라 판도가 달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오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코비드19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현실을 넘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여 나

아가면 우리 앞에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절대 긍정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긍정적인 존재해석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도 결국

은 선한 결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고 밝은 소망을 가지라는 인생 해석학이려 여겨집니다. 긍정적인 해석의 안목을 가지고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평안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해석하고 이해하여 어려운 펜데믹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힘이 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후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염려와 고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듯합니다. 종교계나 정계나 경제계나 학계나 문화 예술 모 든 분야에 걸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신앙에 근거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서 인류사회 앞

에서 긍정적인 역사 해석의 외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증거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가진 많은 이복형들을 가진 복잡한 집안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바울의 긍정적인 인생해석을 하라는 성경구절로 정리되는 듯합니다. 이 요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해석의 원리라 여겨집니다. 이 긍정적 인생해석의 원리를 따라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cyd777@hotmail.com



KAPC 청교도 이민 400주년 웨비나 둘째날 강의가 열렸다

‘청교도 유산과 21세기 목회적 적용’ KAPC 청교도이민400주년 웨비나, 강사 김형익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청교도 이민 400주년 웨비나 둘째 날 강의가 10일 오후 5시(동부시간 오후 8시) 온라인 고투미팅을 통해 열렸다. 김성일 목사 사회로 조문휘 목사 인사말이 있은 뒤 김성일 목사 기도 후 시작된 웨비나는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가 ‘청교도의 유산과 21세기의 목회적 적용: 설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형익 목사는 “청교도를 말하면서 설교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청교도로 불리는 그 시대의 목사들이 모두 뛰어난 설교자들이었고,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그들의 저작들이 대부분 강단에서 전한 설교들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후반에 이르는 청교도들의 시대를 소위 설교의 황금시대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교도들에게 목사는

설교자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하든지 아니면 말망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이해하는 설교의 중요성은 수위성은 단지 목사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지 않았다. 청교도들은 설교를 공예배의 절정이며, 성령의 권능에 의해 수반되는 말씀선포와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구원과 성화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중요한 중재수단”이라 말했다. 그는 “청교도의 설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며 “설교 목적은 청중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이르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며 “청교도 설교의 특징은 단순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본문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복음의 진수를 담았었다. 특별히 청교도 설교의 3요소(본문, 교리, 적용)는 그들이 인간의 지성과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말하며 “개혁과(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징이 체험적 설교, 또는 실험적 설교였다. 청교도 설교자들의 복음의 설교는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성격을 가진다. 청교도들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청중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교의 적용의 문제는 비단 설교자인 우리만의 몫은 아니다. 청중의 몫도 있다. 그래서 설교자들만큼이나 청중 또한 훈련될 필요가 있다”라며 “그 하나의 실제적인 방법은 교리문답의 회복이다.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성도들은 청교도들이 전했던 것과 같은 ‘이런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된 청중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교도 전통에서 배운 그 부요한 설교의 유산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는 각자의 과제”라며 “리처드 벡스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매주일 ‘다시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한다. 이런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4차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진건호 목사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신임회장에 진건호 목사 선출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4차 정기총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나눔과섬김교회(담임 엘리야김 목사)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이 사장 겸 부회장 진건호 목사(하튼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신임 회장 진건호 목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1년 동안 회장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갈 수 있도록 하며, 남가주한인목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하고 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장 이정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총회에서 부회장 서사라 목사가 개회기도, 총무 라은규 목사가 회원을 점명한 뒤 회장 이정현 목사가 개회를 선언했다. 총무 라은규 목사가 전회의록 낭독을 한 후 제1호 안(2020년 회무, 회계, 감사보고), 제2호 안 54대 회장 및 임원 선출, 제3호 안 기타 의안 채택을 하고,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감사 박문석 목사가 감사보고, 총무 라은규 목사가 회무보고, 회계 방영섭 목사가 회계보고를 한 후 54대 회장단 선출에 들어가 공천위 서기가 공천위원회 보고를 마친 뒤, 현 이사장 겸 부회장인 진건호 목사를 제

5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안전 토의를 통해, 신임 회장에게 수석부회장 선출과 관련 위임을 결의하고, 신임 회장이 공천위원을 구성해 회장 취임식 때 수석부회장과 함께 취임을 할 수 있도록 위임 결의한 후 총회를 마쳤다.

한편 1부 예배는 부회장 엘리야김 목사 인도로 부회장 주재임 목사가 대표기도한 후, 부회장 김바울 목사가 성경봉독(갈 2:20)을, 남가주교협 증경회장 강신권 목사(성경장로교회 담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여성분과위원장 안선신 목사가 봉헌송을 부른 뒤 부회장 박정희 목사 봉헌기도 후 강신권 목사가 축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IKOINONIA 선교플랫폼 컨설턴트 초청세미나에서 김정한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또 다른 선교의 방법과 기회 기대

IKOINONIA 선교플랫폼 컨설턴트 초청세미나

IKOINONIA(아이코이노니아) 선교플랫폼 컨설턴트 초청 세미나가 11일 오전 10시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한 선교사)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박남호 대표(네스텐 대표)와 김정한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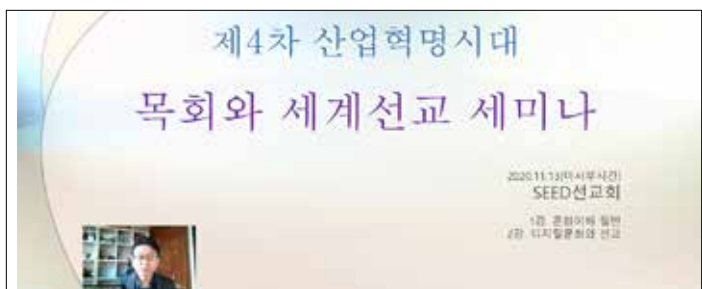
서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1대1 사역에 대한 고민과 진행 사역 등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아이코이노니아의 선교플랫폼이 이러한 고민과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중심에서 온라인과 대면이 공존하게 됐고 이는 물리적 공간 중심에서 가상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며 “적성국가에 선교를 가게 되면 신분보안과 통신보안 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지만 블록체인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코이노니아 선교플랫폼은 171개국의 3만명 선교사들에게 보안통신 시스템 제공하며, 선교사역을 위한 초교과 컨설팅을 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의 선교지원과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선교지 자립프로그램 지원, 한국선교의 최고의 선교플랫폼 구축 및 제공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정한 선교사는 “코로나19 전까지의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비즈니스 선교의 확산과 함께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그동안 1대 1 수 개입 전통선교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이제는 가상공간에

서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1대1 사역에 대한 고민과 진행 사역 등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아이코이노니아의 선교플랫폼이 이러한 고민과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중심에서 온라인과 대면이 공존하게 됐고 이는 물리적 공간 중심에서 가상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며 “적성국가에 선교를 가게 되면 신분보안과 통신보안 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지만 블록체인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코이노니아 선교플랫폼은 171개국의 3만명 선교사들에게 보안통신 시스템 제공하며, 선교사역을 위한 초교과 컨설팅을 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의 선교지원과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선교지 자립프로그램 지원, 한국선교의 최고의 선교플랫폼 구축 및 제공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정한 선교사는 “코로나19 전까지의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비즈니스 선교의 확산과 함께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그동안 1대 1 수 개입 전통선교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이제는 가상공간에

서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1대1 사역에 대한 고민과 진행 사역 등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아이코이노니아의 선교플랫폼이 이러한 고민과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중심에서 온라인과 대면이 공존하게 됐고 이는 물리적 공간 중심에서 가상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며 “적성국가에 선교를 가게 되면 신분보안과 통신보안 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지만 블록체인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시드선교회 주최 제4차산업혁명시대 목회와 세계선교 세미나에서 이대현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목회와 세계선교 시드선교회 주최 세미나, 강사 이대현 박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목회와 세계선교’ 세미나가 시드선교회 주최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렸다. 임태호 선교사 사회로 열린 첫날 세미나는 이대현 박사(미래문화연구원 원장, 한남대, 중앙대, 아세아연합신학교 겸임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강의했다. 이대현 박사는 “문화는 생존 구조다. 문화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지만 생존을 위해 변화가 일어나는 유기적인 모습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복음과 문화는 대립적인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다. 복음이 문화로 들어갈 때 대립, 상통, 통제, 갈등, 변혁 등 요소

가 모두 발생된다”며 복음이 갖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우리문화를 선교지에서 고집하지 않듯이 다음세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다음세대 사역한다면서 물리적인 것들을 동원하지만 의식과 방식은 자신들의 것을 사용한다. 의식적인 다름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상 안에 있되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적 상황과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항상 소통돼야 한다. 디지털 세계는 명제적 진리가 가시적으로 들어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한국 교회의 기성세대는 주로 아날로그 문화 속에 살았던 자들이

다. 반면 차세대들은 디지털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문화구조의 틀에 맞는 복음을 다음세대에 전하려 하니 복음 전수가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나라의 진리인지 단지 하나님나라의 진리라는 것을 포장한 교회문화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믿음이 성장한 교회... 임직식도

벨리연합감리교회 설립47주년 감사주일에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설립 47주년 기념 주일예배가 지난 8일 오전 11시 예배시간에 열렸다. 류재덕 목사는 ‘목사님, 부담이 되네요? 그래요?’(딤후 3: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창립 47주년 맞아 뼈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기초 민족과 국가 우리의 일터를 잡아주는 뼈대는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뼈대가 어떻게 지탱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목사는 “창립 47주년을 맞아 믿음이 성장한 교회가 됐으면 한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째 예배를 반드시 잘 드려야 한다. 둘째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셋째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 함께 나눠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넷째 봉사다. 세상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임직식도 함께 했다. 류재덕 목사는 “하나님이 생명을 드리셔서 세웠기에 직분은 귀한 일을 바라는 것”이라며 “귀한 일 훌륭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다”고 말했다. 명예장로 2명, 명예권사 14명, 신전집사 7명, 신전권사 7명이 임직했다. <박준호 기자>

첫째 예배를 반드시 잘 드려야 한다. 둘째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셋째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 함께 나눠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넷째 봉사다. 세상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임직식도 함께 했다. 류재덕 목사는 “하나님이 생명을 드리셔서 세웠기에 직분은 귀한 일을 바라는 것”이라며 “귀한 일 훌륭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다”고 말했다. 명예장로 2명, 명예권사 14명, 신전집사 7명, 신전권사 7명이 임직했다. <박준호 기자>



# 교계 기사판

## LA카운티 정신건강국 프로모터 모집 안내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이 한인 포함 아시아태평양 커뮤니티에서 통합정신건강 프로모터를 모집한다. LA카운티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관련 경험이 있거나 보건, 가정폭력, HIV 등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 프로모터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급교육시간이 포함된 기초교육을 완료하고 최종시험을 통과하면 활동이 가능하다(영어로 교육, 통역 예상) 프로모터가 되면 지역 한인 사회의 단체, 교회, 학교, 이웃, 도서관, 공원 등에서 프리젠테이션 장소를 골라 한국어로 교육을 제공하게 되며 한달에 최소 4회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된다. 컴퓨터 활용능력이 요구되며 급여(시간당 \$15.38-\$22.36)가 지급되므로 소셜번호 소지자여야 한다. 영문 이력서를 DMHPromotors@dmh.lacounty.gov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364-5087(영어)

## 교역자 청빙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에서 교육부를 맡고 사장으로 섬겨줄 교역자를 찾고 있다. 지역분야는 파타임 초등부 1명, 고등부 1명이며 주일 교육부 설교, 예배인도, 금요예배, 성경공부 진행, 연중행사(VBS, 수양회 등) 계획 및 진행이다. 지원자격은 신학대학원 졸업, 재학, 혹은 재학 예정자로 개혁신학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는 자이며 미국 취업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보낼 서류는 자기소개서(신앙간증서 포함), 이력서, 추천서 2부(추천인이 직접 이메일로 보내야 함)이며 이메일(pkennylee1@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909)396-4441

## 남가주온유한교회 제2차 구디백 나눔행사

감사의 계절을 맞아 남가주온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제2차 구디백 나눔 행사를 갖는다. 오는 21일(토) 오후 1시-3시 매그놀리아와 라팔마 길 코너에 위치한 미주복음방송(2641 W. La Palma Ave. Anaheim) 파킹장에서 세정용 물티슈, 마스크, 쌀, 라면, 화장지 등을 담은 구디백을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전달한다. ▲문의: (626) 833-7787 장범원 목사

## 한미특수교육센터 Thanksgiving Distribution 2020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발달장애 가정들을 위한 나눔행사인 Thanksgiving Distribution 2020을 24일(화) 오전 10시30분부터 정오까지 San Marino Park(8700 Hoffman St, Buena Park)에서 실시한다. 거주 발달장애(DDS)와 거주39지구 연방하원 당선자 영김, Waste Not OC, and Orange County Supervisor Doug Chaffee 등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나눔 행사는 맛있는 간편식품과 유제품, 농산물들과 개인보호용품(마스크, 손세정제, 페이스트, 비누), 장난감, 그리고 센터리 패키지를 나누게 된다. 수량이 제한돼 있어 미리 신청해야 한다.

▲문의: program@kasecca.org (562)926-2040



뉴욕실버미션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세계는 부른다! 실버들이여!

## 뉴욕실버미션 컨퍼런스, 강사 김재열 목사

뉴저지목사회 11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0일 오후 6시 뉴저지순복음교회(이정환 목사)에서 열렸다.

신임회장 이의철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 지난 10년 동안 목사회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11회기 목사회에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고비의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갈 때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팬데믹 2기에 회장이 된 이의철 목사는 ‘일어나 함께 감시다(마26:46)’라는 표어의 배경에 대해 “목사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목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큰 사업을 하기보다 ‘우리가 당신과 같이 있으며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사회가 되기를 원해서 금년도 11회 표어를 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46, 예수님이 잡자던 제자들을 깨우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모두 일어나 주님을 앞세우고 힘을 합쳐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번 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한다”며 참여와 기도 후원을 부탁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46, 예수님이 잡자던 제자들을 깨우고

# 신임회장 김진화 목사, 부회장 마바울 목사

## 뉴욕목사회 제 49회기 정기총회

뉴욕목사회 제 49회기 정기총회가 11월 16일 열려 신임회장에 김진화 목사, 부회장에 마바울 목사가 선출됐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뉴욕교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열린 총회에는 107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회장 경선을 치렀다.

뉴욕교협회장을 역임했던 기호 1번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는 목사회에서는 서기(37회기), 총무(38회기)를 역임했다. 기호 2번 마바울 목사(퀸즈성령강림교회)는 수석협동총무를 지내고 48회기 총무로 재직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53 대 53의 결과가 나와 목사회 초유의 사태



뉴저지목사회 11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팬데믹 시대... “일어나 함께 가자”

## 뉴저지목사회 11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뉴저지목사회 11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0일 오후 6시 뉴저지순복음교회(이정환 목사)에서 열렸다.

신임회장 이의철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 지난 10년 동안 목사회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11회기 목사회에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고비의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갈 때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팬데믹 2기에 회장이 된 이의철 목사는 ‘일어나 함께 감시다(마26:46)’라는 표어의 배경에 대해 “목사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목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큰 사업을 하기보다 ‘우리가 당신과 같이 있으며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사회가 되기를 원해서 금년도 11회 표어를 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46, 예수님이 잡자던 제자들을 깨우고



뉴욕목사회 제 49회기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가 벌어졌으며, 2차 투표 결과 이재덕 목사 48표, 마바울 목사가 56표를 얻어 마바울 목사가 부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 김진화 목사(미래비전교회 담임)는 박수로 회장에 추대됐다.

신임회장 김진화 목사는 “지난 1년간 회원들의 뜻을 잘 들

었다”며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잘 새겨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인사했다.

감사는 현장 추천으로 현재 감사인 한석진 목사와 유승례 목사를 유임시키고, 권캐더린 목사를 추가 선임했다.

신임회원으로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김현숙 목사(퀸즈소망교회), 문정용 목사(주나목교회), 박진수 목사(뉴욕그레이트네교회), 이종식 목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이추실 목사(뉴욕그레이트네교회),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등이 회의록에 수록됐으나 현장 참석자만 가입허락을 받았다.

또 목사회를 대거 후원한 이풍삼 목사, 이종식 목사, 김성국 목사, 김바나바 목사, 박수



뉴욕교협 47회기 이취임식 및 시무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Step Forward with Renewal for the Future”

## 뉴욕교협 47회기 이취임식 및 시무예배 드리고 출범

뉴욕교회협의회 회장 부회장 및 임실행위원, 35대 이상장 취임식 및 시무예배가 지난 11월 12일 오전 10시30분 뉴욕교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47회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문석호 목사 △부회장 김희복 목사, 백달영 장로 △총무 한기술 목사 △수석협동총무 권캐더린 목사(여), 정대영 목사(남) △서기 박시훈 목사 △부서기 김희숙 목사 △회계 안경순 목사. 또 △이사장 이준범 장로 △부이사장 홍한나 권사 △감사 김영철 목사, 김기호 목사, 손성대 장로로 구성됐다.

문석호 목사는 이번 회기에 특별혁신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 부위원장 전희수 목사)를 구성해 표어(“Step Forward with Renewal for the Future”)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석호 목사(뉴욕교신장로교회 담임)는 취임사에서 이민 사회와 함께 한 47년 교협 역사를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400년전 미국 땅에 왔던 청교도들처럼 이민교회가 세속문명에 물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 나가야 할 사명에 대해 강조했다.

문석호 목사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히10:24) 모이기에 힘쓰는 연합체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자”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심 없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희복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김성국 목사(장학분과, 퀸즈장로교회 담임), 성경봉독 백달영 장로(부회장), 효신장로교회 찬양대, 말씀 방지각 목사(증경회장),

철 목사, 조원태 목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임원인 마바울 목사, 이기웅 목사, 박드보라 목사, 김희숙 목사, 박시훈 목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재정은 총수입 46,656.93달러, 총지출 45,828.25달러, 잔액 828.68달러로 보고됐다.

임원교체 후 신안건으로 나온 김재호 목사의 명예훼손 주장(이단문제)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진화 목사 인도로 기도 김신영 목사, 성경봉독 심화자 목사, 특송 홍보래 집사, 설교 이종식 목사, 축도 문석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식 목사는 “평탄하고 험통하게 사는 방법”(수1: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새 리더십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자신도 강도사로 개척하면서 기도 중에 “네가 내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하고 목회를 해왔더니 평탄한 길을 주셨다”고 말하며 “2021년 목사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험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 “광야를 지나며” ...강사 김성국 목사

## 필라 영생장로교회 설립 39주년 말씀집회

필라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가 설립 39주년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야를 지나며”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말씀집회를 열었다.

첫날 백운영 목사는 강사 김성국 목사를 소개하면서 “미국 이민교회의 한 획을 그은 담임이던 필라 영생장로교회 설립으로 문을 사역과 신학교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강단에 불이 붙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국 목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히11:13-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 영광을 위해 달려온 39년, 어떻게 지내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왔는가?”라며 앞으로의 39년을 축복했다.

김 목사는 “첫째, 흔적을 남기라. 내 꿈을 버리고 예수님의 꿈을 좇아 살아야 하며 그러려면 변화, 회심, 회개가 있어야 한다”며 “아브라함의 순종, 요셉의 구별된 삶, 모세의 흔적 등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흔적을

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모두 일어나 주님을 앞세우고 힘을 합쳐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번 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한다”며 참여와 기도 후원을 부탁했다.

뉴저지목사회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의철 목사 △부회장 윤명호 목사 △총무 김주동 목사 △서기 이상성 목사 △회계 정철수 목사 △목회분과 박인갑 목사 △차세대분과 홍인석 목사 △음악분과 김동권 목사 △체육분과 신철웅 목사 △여성분과 김경희 목사 △홍보분과 김동욱 목사.

한편 뉴저지목사회는 청교도 400주년 기념 부흥회를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매일 새벽 5시30분과 저녁 7시 30분 개최한다. 유튜브에서 “청교도 400주년 기념 온라인 부흥회”를 검색하면 된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를 돕기 위한 사랑나눔운동도 벌이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필라 영생장로교회 설립 39주년 말씀집회에서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8)

##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한교회담임)



###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나, 그 중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자본주의가 개신교 윤리에, 더 정확히 말하면 청교도 신앙(Puritanism)에 기원을 둔다는 것이다.

(1)노동(勞動)과 직업(Labor and Occupation)-청교도의 노동관은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졌다는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 개혁자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은 “악한 mammon의 비유”(The Parable of the Wicked Mammon)에서 외견상으로 보면 “접시를 닦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

며 비록 일을 한 결과 부를 얻었을 때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단지 부를 모으기 위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1분이라도 아끼고자 노력한 청교도들에게 있어 좌우간 자신의 직업에 바쁜 것은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그렇다. 노동은 바로 직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통상 우리는 직업이라고 할 때에는 영어로 Vocation이라고 쓴다.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의 보카치오(Vocatio)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직업을 소명이라는 말로서 콜링(Call-ing)이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막스 베버도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어 베루프(Beruf)는 영어의 콜링(Calling)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육이원론(Dualism)” 입장에서 노동을 경시했는데, 고대인들 중에도 노동을 찬양한 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대중 가운데서 가장 나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며, 시세로(Cicero)도 “농사보다 더 좋은 일 없으며, 자유인에게 그보다 더 어울리는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소위 사제의 직업을 “성직”이라고 하였고, 이는 다른 직업의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루터(Luther)에게 있어서 “만민제사장직분”은 모든 건전한 직업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보았다.

중세 라틴어에 ‘Laborare est orare’(라보라레 에스 오라레)란 말이 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렇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Calling)이었다. 이 소명에 응답하는 삶은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Calvin)은 “거룩한 삶은 수도원에서 은거하며 종종 주발을 들고 구걸을 하는 ‘탁발수도사’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든 노동자의 삶이다”라고 말했다.

kimjoyh@gmail.com

5)사회윤리관(Social Ethics View) 회복과 부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5:13).

윤리(倫理)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인륜(人倫)”을 말한다. 영어로는 Ethics, 독일어로는 Ethik인데, 이 말은 헬라어의 Ethos에서 나왔다. Ethos(Ethos)라는 말은 ‘관습’이나 ‘전통’을 의미하고, 율법에 의해 규정된 ‘관습’이나 ‘실천’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인다. 그러므로 Ethos는 인간이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교도 신앙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전하다는 믿음 위에 기초한 실천생활방식이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만큼 철저한 도덕주의자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랄프 버튼페리(Ralph Barton Perry)는 그의 저서 ‘민주주의와 퓨리타니즘’(Puritanism and Democracy)에서 청교도들을 도덕선수라고 불렀다. 그 중 전형적인 도덕선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매튼 매더이다.

그렇다. 기독교윤리,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원리의 기준은 성경이며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고 특히 성도들에게 최종적 절대적 권위이다. 일반윤리의 개념과 같이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 개인이나 사회의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이, 심지어 사회의 여론이 윤리의 기준이나 최종적 권위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최종적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1:2,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모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책들

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활에 정확무오한 규범이라는 것은 분명하였다.

오웬(John Owen, 1616-1683)도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땅의 삶 동안 그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화이다.” 그는 또 말했다. “거룩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기도 하며 인간에게 명해진 의무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도덕적 명령, 예를 들어, 부모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을 금지한 것은 선악의 분명한 판단 규정들이다. 또한 낙태와 안락사 그리고 자살은 살인죄이며, 특히 동성애(Homosexuality)는 최고의 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억제하여 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다루어 ‘죄 죽임의 교리’(A Doctrine On Mortification)를 강조한다.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이 불가능하지만 청교도들은 거룩의 최고봉에 이르기 위한 열망으로 완전한 거룩을 추구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 이외의 교회사에서 가장 거룩한 무리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탁월한 거룩은 그들의 특징인 동시에 그들의 능력이 되어서 자신들의 시대는 물론 지금까지 남긴 글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칭찬을 받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범죄다. 결혼의 침대는 축복받지만 간음은 정죄되었다. 청교도들은 자연적 감정을 정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이 아닌 감정을 정죄했다. 청교도들은 인간의 욕망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예측되는 것을 정죄한 것이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6:19-20).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인 플리머스 필그림들에게는 경제적 궁핍이 종교적 정치적 이유와 더불어 신대륙으로 이주케 한 주요 이유였다.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자신의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 세기에 이르는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였다.

자본주의의 정신을 이루는 루터와 칼빈의 강력한 공헌은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부여였다. 막스 베버가 칼빈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에 모체라고 했지만, 진정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에 기여한 것은 유럽에서보다도 신대륙의 뉴잉글랜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Capitalism)의 기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

### 청교도의 생활원리 기준은 성경, 윤리적 도덕적 선한 싸움 행해 자본주의는 청교도신앙에 기원, 소명으로서 직업에 새 의미부여

란죄(창19:23-28, 롬1:26, 27)이며 선의의 거짓말, 또 돈과 재물에 대한 사랑(딤후6:10)도 허용될 수 없는 죄악이다.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 행위들이나 의식들을 ‘아디아포라’(Adiaphora)라고 한다. 예를 들어, 포도주나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그 행위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요(엡5:18),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죄로까지 간주된다(고전6:10; 갈5:21).

즉, 성욕의 만족에서 발견되는 쾌락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만족한 부부간의 성욕을 더 더욱 자극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手段)으로서 욕정을 정죄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죄와 싸움을 했으며, 그들의 생활은 참으로 전투적이었다. 즉 청교도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도덕적 선한 싸움을 행한 자들이었다.

6)성경적 경제관(Biblical Economic View) 회복과 부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 세기에 이르는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였다.

자본주의의 정신을 이루는 루터와 칼빈의 강력한 공헌은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부여였다. 막스 베버가 칼빈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에 모체라고 했지만, 진정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에 기여한 것은 유럽에서보다도 신대륙의 뉴잉글랜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Capitalism)의 기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Dr.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행 배: 오전 10: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찬양):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목, 수, 일, 찬양동무: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항찬양: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월, 수, 일, 찬양: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8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교회</b>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노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jjk.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세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회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기감 2016년 선거 무효 확정

### ‘전명구 감독회장’ 기록은 사라졌다

2016년 9월 치러진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와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에 모두 '무효'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감독회장 경력은 기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다.

전 목사는 재임 동안 선거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 휩싸였다.

2018년 1월 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3

개월 뒤 직무가 정지됐다. 기감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 원고가 청구를 취하하면서 감독회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고 이듬해 2월 또다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5개월

후 재차 직무가 정지됐다.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전 목사의 감독회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결론나지 않고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두 소송의 피고인 기감 본부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6년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와 당선에 모두 무효로 확정됐다.

전 목사는 2017년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첫 번째 구상권 청구와 출고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는 사

회 법정에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한, 감독회장 선거 무효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

기감 본부의 한 관계자는 "2017년 교리와 장정 개정 이후 수 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면서 자동 취하됐다"면서 "확정판결까지 간 건 이번 선거·당선무효 판결이 최초의 사례다. 따라서 2017년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출고와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반성경적 내용 담은 입법 반대”

### 한교총 포괄적차별금지법·모자보건법 철회 위한 기도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12일 서울 광림교회(김정석 감독)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행사 2부 특강과 기

도회에서 한기재 기독교대 한성결교회 총회장은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나태를 함평화하는 개악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함께 생명존중주일을 지켜나가며 한국사회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태영 대표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속 일부 조항이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위협해 학교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며 법 개정 반대했다. 사학이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윤재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와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씨는 반성경적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기독교 청년의 시민운동과 교육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특별강연과 사례 발표를 했다.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1부 예배 설교에서 교회의 영향력과 권위 회복, 연합을 강조했다. 이 감독회장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합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한층 더 성숙한 인격으로 사랑을 실천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은 위헌적 발상”

### 인사권과 자율성 훼손...기정추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교회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보장을 요구하며 21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학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방이사 확대, 학교장 임용권 제한 등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만큼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교총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와

한교총 연구위원이 2개월간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됐다. 장로회신학대 박상진 기독교교육과 교수 등 학계·기독교계 인사도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개방 이사 정원을 현행 4분의 1에서 2분 1로 확대하고, 이사 선임에도 학교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태영 대표회장은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특히 개방 이사 정원 확대는 법

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도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정추 연구보고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법인의 학교장 임용 권한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초·중·고교장과 대학 총장은 학교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인물인 만큼 법인 이사회가 임용해야 한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주장이다.

기정추는 개방이사 정수를 늘리는 대신 학교법인의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평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와는 차별화된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정추 위원장인 김운성(영락교회) 목사는 “무조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학을 살리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교 한국교회와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무늬만 아니라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기독교학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정추는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기독교 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기구다.

## 원로목회자연합단체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출범

### 18일 취임예배, 대표회장 송용필 목사, 총재 서기행 목사

원로목회자의 총연합기관 인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

회 총재, 대표회장 및 임원 취임 감사예배가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현재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외협력 부총장으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송 목사는 14일 교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임원들의 취임식이 아니라 원로목회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날이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다스리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원로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단체 명예이사장은 립인식 목사, 이사장은 신신목 목사, 명예총재는 김장환 목사, 총재는 서기행 목사, 부총재는 김삼환 목사가 각각 맡는다.

또 상임회장은 문세광 목사, 후원회장은 이주태 장로이다.

이밖에 각 교단 대표, 17개 지역 대표, 공동회장 등의 조직을 둘 예정이다.

이날 설교를 하는 과선희 목사는 “참으로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에서 설교를 맡게 돼 영광이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격려사를 전할 지덕 목사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모범적인 교회 원로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 원로칼럼

### 주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중)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대구 광진중앙교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한 필자의 강연을 정리한 것으로 '원로칼럼'에 대신한다.]

#### 2.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지난 70년 동안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세작들을 보내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이고, '이승만은 민족분단의 원흉이다'라고 선전, 선동되어왔고 세뇌되어왔습니다. 여기에 좌파언론과 의식화된 역사가들이 이승만을 비판

해야 마지 지식인으로 대접받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광복회장의 연설은 바로 북한의 세작들의 내용과 너무나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탄생일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임시정부는 서울과 블라디보스톡과 상해 3곳에 있었다가 상해로 발전적으로 합했습니다. 하지만 상해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중에는 진정한 애국지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상해 임시정부대통령도 이승만 박사였지만, 상해임시 정부안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이 박사를 퇴출시키고, 항상 좌우합작을 주장하는 김구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김구가 나라의 큰 지도자였고, 애국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좌우합작,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을 앞세웠고, 남북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월북했던 김구 선생은 김일성에게 푸대접 받고, 이용만 실컷 당하고, 김일성의 붉은 군대의 사열이나 받고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특히 김구는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가장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김구를 위대한 애국자로 치켜세우고 있는 반면에,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리 말할 수 있겠지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동안 세작들의 집요한 교육도 있었지만 주체사상 이론을 배운 자들은 아직도 우리 민족끼리만을 주장하다보니, 심지어 금번 국가조찬기도회도 한반도기를 펴달라게 했습니다. 오늘의 정부가 연방제를 꿈꾸니 이승만은 걸림돌이 되겠지요.

그동안 북한의 세작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 친북, 친공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특히 세뇌된 전교조가 조·중·고를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거짓 선전, 선동 교육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이 말하는 대로 우리민족끼리 하나 되자고 하여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없애고 공산주의 통일이라도 통일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생각을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바이러스가 오늘의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미국 New York Time지의 조간지 일면 Top News는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이 탄생했다”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UN이 승인한 유일 합법적 국가 자유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없애는 것이 평화요, 통일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끼리를 외친 김구는 위대하다고 띄웠고, 이승만은 역적이라고 난도질을 했습니다. 더구나 좌경화된 역사학자들이 앞장서서 거짓된 이론을 만들고, 전교조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왔습니다.

나는 이승만 박사가 우리민족의 별이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건국대통령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1980년대에 이승만 박사의 사저인 '이화당'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카 여사와 양자 이인수 박사와 며느리 조혜자 권사와 더불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나는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하던 곳 특히 하와이를 세 번이나 가서 하와이대학부설 한국학연구소에 가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여정과 미국에서 학문했던 걸음을 모두 추적해보았습니다.

이승만 청년이 한성교육에 6년 가까이 있다가 출소하자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30세에 미국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은 워싱턴DC에 있는 정통 장로교회인 언약교회(Church of Covenant)에 출석하면서 조지워싱턴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교회의 담임목사는 헨린(Tuenis S. Hamlin)이었고, 그는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이사장이자, 조지워싱턴대학의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헨린 목사는 1900년대 초에 미국 교회의 대지도자로서 이승만을 신앙적으로 알뜰히 보살폈습니다. 이승만은 헨린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신앙적 사상적 교육을 받았습니

다. 그 후 이승만은 박사학위를 위해서 프린스턴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처음부터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프린스턴신학교의 분위기는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과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898년 프린스턴신학교의 교장인 B.B. 워필드(B.B. Warfield)박사는 화란의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요, 대 정치가요, 저널리스트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 박사를 초청해서 '칼빈주의 강연'을 함으로 프린스턴신학교가 칼빈주의 사상이 대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승만은 1년간 신학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승만은 워필드의 대를 이은 페톤(Paton)교장 아래에서 헨린, 라틴어, 철학을 공부했고, 어드만(Prof. Eerdman)교수 아래에서 '바울 서신연구'를 했고, 그린(Prof. Greene)교수로부터 기독교 변증학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프린스턴신학교는 위대한 칼빈주의자 월필드(B.B. Warfield) 박사와 칼빈주의 성경신학자 겔할두스 보스(Geerhardus Vos) 박사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승만은 워싱턴의 카보난트교회의 헨린 목사로부터 정통개혁신앙을 배웠고, 프린스턴신학교에서 1년간 역사적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가슴속에는 장차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된다면, 기독교 신앙위에 즉 성경적 세계관 위에 나라를 세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바로 카이퍼 박사와 월필드 박사가 말하는 칼빈주의 세계관 그것은 곧 미국의 건국이념과 같습니다. 즉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면 하나님 중심의 나라, 성경중심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승만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공부했고, 하와이 감리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의 멘토였던 헨린 목사와 대 칼빈주의자 B.B. 월필드와 페톤 교수로부터 받은 칼빈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민족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귀국한 이승만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다졌고,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만들고, 선포하기 전 이윤영 의원을 향하여 앞으로 나와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역사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처음입니다. 시편에 있는 대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독립운동가요, 위대한 외교가요, 저널리스트요, 위대한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의 국부로 모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15면으로 계속)

##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뢰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우울증과 영적 치유” (29)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예수님 찬양: 항상, 특히 힘든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슬픈 마음과 시간을 위한 좋은 치료제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우리의 아픔은 치유되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만물 가운데 임재하신 주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매일 예수님께 찬양 드려라.

주님 찬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12:2-3). 이 성경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준다.

기도: “예수님,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걱정, 근심,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 우울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방지한다.

기도: “예수님, 온 마음과 영혼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편지쓰기: 1)예수님께 사랑의 편지쓰기 2)예수님으로부터 당신에게 쓰는 사랑의 편지 쓰기 3)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편지쓰기 4)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쓰기 5)우울증에서 치유되는 승리의 기도문쓰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

가?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함으로 영접할 수 있다.

기도: “예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저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영적 처방: 3. 자신 사랑하기

우울한 마음에서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비난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보시는 하나님 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그렇게 대접을 받아왔으므로 자신들의 삶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하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행나이다. 저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연젠가 한 번은 늘 미소 짓는 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거울 보며 “너를 사랑해, 너는 정말 특별해”라는

그의 하시는 일에 소중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나라 건설사업에 있어 조력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계 정복자이며, 사탄은 나와 맞설 수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도 되었고 영접했으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실수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 삶에 비전,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기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이 나를 연단하는 것임을 알기에 용기를 얻는다.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에 기쁨을 느낀다. 하나님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나는 희망을 가진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제자로 훈련하시니 나는 축복 받았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5:22-26).

yonghui.mcdonald@gmail.com

## 하나님 사랑하기에 집중: 예수님 찬양과 영접, 삶의 고난에 두려워 않기 사랑의 편지쓰기, 말씀에 순종하기, 기도하기

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들이 자신의 아픔에 집중할수록 그들의 아픔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그릇된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치유함이나 평안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이해력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기에 우리의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고 인도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슬픔이나 우울한 생각은 우리를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 문제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들은 약한 영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의심,

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14: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14:23-24).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딤후1:5).

예수님 영접하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4:19).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절망, 증오, 자존감 결여, 열등감에 의해 고통을 당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 사회적 가치에 따라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다. 그 가치 중 대부분은 온전하지 못하고

말을 자신에게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 당연히 그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거나 실수를 저지른 때마다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자신에게 다음의 말을 하라:

“하나님이 의해서 훌륭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키는 존재이다. 하나님 나라와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 서론 3: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2)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고 윤리가 있으며 철학이 있고 의학, 과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지식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 윤리, 철학, 의학 그리고 과학 등의 지식을 원한다면 다른 책이 더 좋습니다. 성경에서 재미와 유익을 찾으려 하면 안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원하시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둠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호6:3 참조, 마9:13).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
2.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4, 5).
3.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의 결국

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12:13, 14).

4.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와 말씀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삼상15:22, 23).

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사46:9).

7.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 때 심령 안에서 삶 속에서 역사 그리스도인이 성경말씀 없이 산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아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6-8).

8.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9.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을2:12, 13).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

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 1)죄를 이기도록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119:9-11).
- 2)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5).
- 3)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매일 되새기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타성과 식상함을 버리고 충성된 종으로 첫 사랑 그 첫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을까요? 1)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기독교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생명과 같이 여길 것입니다. 2) 말씀의 주인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사랑하는

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 5)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접근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이고 은혜와 믿음으로 접근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6)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대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 전도, 선교, 찬양과 기도, 금식 심지어 예배의 자리 지킴조차도 우리가 말씀으로 부인되지 않는다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7)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일단은 육신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임에도 말씀 없이 영이 죽어가고 육신이 살아있으므로 영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8)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9)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첫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부하기에 우리가 드러내는 일, 원하는 일 하는데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10)늘 시간이 없다고 하며 항상 ‘다음부터’라고 말합니다. 오전이면 오후, 오후면 저녁, 저녁이면 다음 날, 다음 날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음’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 없이 산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천상예배(계5:11-14)찬479장

본문에 나온 천상의 예배는 어떻게 드러졌습니까?  
첫째,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양이신 성자 예수님을 향해,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만물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그리고 찬송이 어린양 죽음의 공로로 나타났음을 찬송했습니다.  
둘째, 모든 피조물 역시 그 어린양께 찬송, 존

귀, 영광 그리고 권능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에게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앞뒤로 경배했습니다. 천상의 예배자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십자가를 핑계 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 화 첫째 인을 열 때 일어난 일(계6:1-2)찬390장

계시록에 나온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구속의 점진적 완성을 상징주의를 통해 같은 사건들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첫째 인은 구속이 어떻게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첫째, 흰 말 탄 자란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가리킵니다. 겸손하게 시작할 복음은 환난 속에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과

지식이 왕래해도 복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둘째, 활과 면류관은 영적 전쟁을 통해 복음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는 오직 복음뿐입니다.  
셋째,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행동은 모두 승리했고 승리하고 승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복음의 전신갑옷을 입은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 수 둘째 인을 열 때 일어난 일(계6:3-4)찬375장

복음은 여러 환난을 통과함을 예고합니다. 그 중 전쟁을 통해 복음의 전파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다른 붉은 말이란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전쟁을 가리킵니다. 전쟁사를 통해 복음은 도리어 그 세력이 강해지고 널리 확장되어집니다.  
둘째, 땅에서 화평을 제함은 복음의 또 다른 면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려오지 않고

불을 던지려 오신 것은 복음의 심판적 측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진정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심판을 동반합니다.  
셋째, 큰 칼을 받은 것은 복음의 절대 위력을 보여줍니다. 그 능력으로 현재에 내가 당면한 환난을 절대 승리할 수 있습니다.

### 목 세째 인을 열 때 일어난 일(계6:5-6)찬502장

역시 복음운동은 온갖 재앙 속에서도 그 능력을 나타냄을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 검은 말은 흉년을 통해 큰 재난을 상징합니다. 전쟁으로 그는 피해는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는 온갖 결과를 생각해 합니다.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가진 저울과 거대한 구체적인 밀과 보리의 수량은 경제적 난관을 암시하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 중에

서도 택한 자의 보호가 약속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가리키며 큰 기근 속에서도 특별한 보호가 따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큰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으로 보호를 받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난 기근 속에서도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 금 넷째 인을 열 때 일어난 일(계6:7-8)찬462장

청량색 말을 탄 자로 나타난 환난은 어떤 열매가 따릅니까?  
첫째, 사망과 음부가 따릅니다.  
둘째, 검과 흉년이 융합되어 생겨난 치명적인 고난이 몰려옵니다. 전쟁과 재난이 혼합된 일이 생김으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미 예고하신대로 말세에 일어날 큰 고통의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천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땅 사분의 일을 멸하는 권세는 자연의 부조화를 통해서도 계속 일어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일어나는 큰 고통의 때에도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순종함으로 극복하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토 다섯째 인을 열 때 일어난 일(계6:9-11)찬383장

순교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으로 돋보인 다섯째 인을 열 때 생긴 일은 무엇을 예고합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구속의 기초인 의를 세움은 모든 일에도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당한 수고는 반드시 합당한 상급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쉬라고 하

셨습니다. 칭의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는 참된 안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환난의 날에도 이 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셋째,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속은 교회의 수고, 곧 순교의 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순교적 정신으로 구속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 코로나(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8)

### 교회교육의 목표

참으로 슬픈 현실은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혹은 기관이 무엇이라고. 첫 번째가 인터넷이었다. 음악, 영화 등 문화매체였다. 그 다음이 부모님이 라고 했다. 그리고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이 그 뒤를 이었고 맨 마지막이 교회였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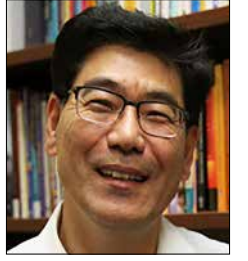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정직과 은화의 표징이었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뭔가 세련되어 보이면서도 늘 명랑하고 좀 달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부러웠고 그것이 교회를 다니게 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 보인다는 증거가 없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창조박물관을 설립한 Ken Hamm은 교회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도덕, 윤리교과서로 취급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언젠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나버린 10대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놀랍게도 다섯 가지로 정리되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교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다. 첫째 그들이 느끼기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단다. 아무리 어른들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더라도 실생활은 그렇지 않은 이중성을 보았다고 했다. 교회가 아무리 친밀한 믿음공동체라고 하지만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성경을 통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하고 교훈(teaching), 책망(rebuking), 바르게 함(correcting), 그리고 교육(training)을 통하여 아이들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교육이라 하면 아이들을 성경박사로 만드는 것에 올 열정을 쏟았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에 옮겨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 연계되도록 교회교육의 커리큘럼이 조직되어야 한다.

### 이희갑 목사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



## 교회교육의 목표는 선한 일 행하기까지 가르쳐야 성경기반 한 영성교육, 리더십교육, 시대읽기교육

친밀감을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강할 것 같다고 했다. 그들이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간의 차이를 도무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실상은 늘 바쁘게 진행되는 교회생활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쌓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교회활동은 많이 위축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필자는 지금 이 때가 교회교육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만드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 교회교육의 3가지 핵심 영역

교회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5-17).

교회학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2

영성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리더십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몇몇의 특정 계층이나 목회자 그룹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섯 가지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을 부여해주셨다. 이를 요약하여 SHAPE이라고 표현한다. 첫 번째는 영적은사(Spiritual gifts)이다. 각자는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독특한 은사로 무장되어 있다. 그리고 각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영역이나 사람들을 향한 간절하게 마음(Heart)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아이를 교육에, 어떤 사람에게는 홀부모 사역에, 또 다른 이에게는 미전도종족 복음전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마음을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기능/능력(Abilities)을 주셨고, 또 각각 다른 성격(Personality)을 부여해주셨다. 이 뿐인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경험(Experiences)을 하게 하셨다. 왜 그런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 하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다섯 가지의 능력과 기능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부름 받았다. 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다섯 가지 SHAPE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켜 그들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한다. (15면으로 계속)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다음과 같이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2021 밀알 장애인 장학생 모집

### 제출서류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www.milalmission.com)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 받는 곳으로 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등)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지도교수)

###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수입증명서 (예: 최근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 받는 곳으로 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등)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지도교수)

###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등)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지도교수)

### 수혜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우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장학금액

- 밀알 장학금 & 근로복지금: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 장학금: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1년 1월 29일(금)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1년 2월 26일(금) 개별통보함

### 수여식

추후발표

### 신청 및 문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14545 Valley View Ave, Suite 5,  
Santa Fe Springs, CA, 90670  
T: 562-229-0001 | F: 562-229-0006  
E: office@milalmission.com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락다운

보도에 의하면 영국 콜린스 사전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봉쇄'를 뜻하는 '락다운'(lock-down)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락다운'으로 인해 각 분야에 걸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뉴노멀한 생활환경에 적응하느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생활과 관련하여 '락다운'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벌써 8개월째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 속에 비대면, 언택트로 서로의 얼굴을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와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봉쇄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충성과 불타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

bible66@gmail.com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1. 제단중심의 가정

나폴레옹은 "우리 불란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많을 때에 그 나라는 자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았고, 손해만 보는 바보스런 생활같이 보였습니다.

3.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며 성경 읽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4. 진실과 공의가 실현되는 가정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1. 주일을 성수하는 가정

참된 제단중심의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중심, 예배중심, 말씀중심의 생활하자

로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월요일날 학교에 가듯이 주일 날이면 교회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날로 자녀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5.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부모가 권위만 주장해서는 원만한 가정이 될 수 없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와 자식들이 대화를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손잡도록 이끄는 사역되게"

생명의전화 창립22주년 기념 감사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박다윗 목사) 창립 22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4일 오후 3시 남가주세 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박다윗牧사는 "지난 6월 창립감사예배를 드리려 했지만 코로나19로 늦게 감사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지난 22년간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며 말을 잊지 못하는 상처 입은 동포들의 한을 위로하기 위해 헌신해온 상담봉사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열쇠가 되고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안식을 경험케 하고 인도함 받아 주님 구원의 손잡도록 이끌어주는 사역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다윗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서오석 목사 대표기도, 김춘자 권사 성경봉독, 오우영 목사가 특별 찬양했다. 이어 나정기 목사가 '협력을 통해서 오는 행복(전4:7-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조병국 목사(남

가주교회 회장), 이정현 목사(남가주목사회장)가 축사했다.

이날 남가주목사회에서 박다윗 목사에게 자랑스러운 목회자상과 이용덕 목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봉사자 감사장 및 메달 수여 시간에 유숙희 상담원(197기)이 300시간 상담봉사로 감사장 및 메달을 받았으며, 김춘자, 박혜숙, 미셀린 상담원(이상 제23기)이 1년간 인턴실수로 상담봉사로 수료증 및 상담원증을 받았다.

이날 예배는 이태환 목사(전 남가주원로목사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사랑한인교회 사랑나눔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랑한인교회 사랑나눔행사 성황리에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가 코비드19로 어려워진 한인커뮤니티에 생필품을 나누는 사랑나눔행사를 14일 오전 10시

본 교회 주차장에서 열었다. 하재식 목사는 "팬데믹으로 다들 어렵다. 저희교회도 재정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과 나누는 분들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오전 7시부터 교회입구에 대기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하 목사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내년 봄에는 규모를 더 늘려 나눔행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나눔행사는 쌀 1포, 은나노 마스크(한국제), 라면, 손세정제, 통조림, 1회용장갑, 가정용 응급키트 등을 150명에게 나눠줬다.

(박준호 기자)

쥬빌리뮤직아카데미 온라인 성악콩쿨 1차 예선 마감

쥬빌리뮤직아카데미(대표 김미경)는 Covid-19 시대의 힘들고 우울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비대면 아마추어 성악가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성악콩쿨, '나도 성악가' 접수를 시작해 지난 10월 31일 1차 예

선을 마감했다. 예선 연주 동영상들을 심사해 9명의 성악가들이 결선에 진출했고, 오는 21일(토)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간 오후 6시(PTS), 줌을 통한 비대면 결선 콩쿨이 열린다. 이 결선 콩쿠르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유튜브 '나도 성악가 2020'을 찾아 들어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미경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통해 기쁨과 용기를 얻고, 또 삶의 희망과 기쁨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쥬빌리뮤직아카데미)

CMF선교원 11월 정기모임예배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11월 7일 오후 5시 CMF회관에서 11월 정기모임예배를 현장예배로 드리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민 장로의 인도로 제프 김 선교사(웨일즈)가 대표기도한 후 박종진 선교사(이집트)가 '복이 되는 자로 부르심'(창12: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선교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누구인가?"라며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자신을 생각해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을 해야 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는 존재, 즉 복이 되는 자로 부르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더글라스 김 목사(HYM대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선거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도하며 판데

믹으로 힘들어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제목은 합심 기도한 후 더글라스 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CMF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기도하며 베네수엘라에 의료품과 구호품을 보낼 것이며 미주복음방송을 통해서 방송결혼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CMF선교원에 관한 문의는 (562)483-0191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코비드 (COVID-19) 세대를 위한...

(14면에서 계속)

재차 강조하지만 리더십교육은 어떤 특정한 사람, 직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도, 행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대정신에 대한 성찰이 아이들에게 심겨져야 한다. 성경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21세기 시대정신에 필요한 방향은 무엇일까? 필자는 고린도전서 9:19에서 찾는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조정, 갈등해결, 이해와 공감, 융합형 커리큘럼을 수립하여 아이들이 다가오는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이에 요구되는 담대한 정신으로 무장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원로칼럼

(12면에서 계속)

그는 물론 3-15 부정선거로 4-19가 일어나 불행하게 퇴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부 부장관 최인규의 부정선거 전략으로 들어나 후일

그는 사형을 받았습다. 그러나 이승만은 당시 경쟁자였던 조병옥 박사가 이미 사망하여 단독후보였기에 부정선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자유당이 정권연장을 위해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정권은 이런 대한민국을 허물어 버리고 공산화 하려고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정부와 정치 환경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승만이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가슴으로 받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란 무엇입니까? 칼빈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主權)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칼빈주의 사상과 인본주의와 유훈주의 사상과의 대결입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세계 10대 종교입니다. 그것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든 김일성 종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젊은이들과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세뇌교육을 시키는 동안, 한국교회의 이른바 보수 우파들은 강 건너 불경경하듯 그저 손 놓고 있었습니다.

skc0727@yahoo.com



추수감사절 축하 광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36:1)

give thanks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12-25 Clintonville St,  
Whith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559-7728(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90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 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필라한인연합교회**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